

TWO CHAIRS

2022 VOL.53
MARCH+APRIL

SPECIAL THEME

기술과 함께하는
일상

LIFE &

영화속 판타지가 현실이 되다
뉴질랜드

SENIOR PLUS

자연을 두르고,
쉽

WEALTH &

미국 연준의 정책 균형점에
따른 주식시장 분기점 전망



MARCH+APRIL



만물이 소생하며 또다른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만큼 우리 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TWO CHAIRS〉3+4월호에서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술 트렌드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선보인 핵심 기술과 일상생활에서 더욱 밀접해진 AI, 미술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NFT 등 익숙한 듯 생소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IT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험적 건축물이 어떻게 도시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는지 보여주는 뤼마 타워에 관한 이야기와 봄을 맞아 야외 활동 시 걷기 좋은 트레킹 명소도 만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장기화와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요즘, 〈TWO CHAIRS〉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며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05 Special Theme



6 INTRO

기술과 함께하는 일상

8 SCENE ▶

멋진 신세계

14 INSIGHT

AI와 사는 법

18 TREND

NFT 사용 설명서

22 REPORT

‘좋아요’가 키우고 ‘언택트’가 확장시킨
쇼핑 시장, 라이프 커머스

26 IDEA

속도의 시대를 사는 법

55 Senior Plus



56 LIFESTYLE

유형별로 알아보는 은퇴 플랜
다시, BRAVO MY LIFE!

58 STAY

자연을 두르고, 쉽

64 OUTDOOR

걷는 맛, 보는 맛으로 가득한 트레킹 명소들

68 GOLF & TRAVEL

천년 고도에서 즐기는 봄 라운드

74 GOLF LESSON ▶

에이미 조의 모든 골퍼의 고민!
우드, 어떻게 해야 잘 칠까?

76 LIQUOR

셀럽들이 사랑하는 술, 막걸리

78 HEALTH

관절 건강 상식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9 Life &



COVER STORY

뉴질랜드 마타마타에 자리한
호비턴 영화 세트장.
영화 <호빗>에 등장한 호빗족의
샤이어 마을 중 일부 모습이다.



30 TRAVEL NOTE ▶

영화 속 판타지가 현실이 되다
뉴질랜드

38 ART

꿈처럼 펼쳐진 미술의 향연
미리 가본 베니스 비엔날레

44 ARCHITECTURE ▶

건축은 어떻게 도시를 살릴까?
LUMA Tower in Arles

50 WHAT'S HOT

삶의 새로운 기준, ESG 라이프

83 Wealth &



84 INVESTMENT

주식시장 분기점 전망

88 TAX STORY

세금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가업 승계
기업을 바통 터치하라

92 REAL ESTATE

리츠^{REITs}로 일석이조 누리볼까?

100 RETIREMENT

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104 ADVISOR

자녀 증여,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108 ART &

미술 작품 투자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112 FOR READERS

발행 및 편집인 유근석

발행처 한국경제매거진(주)

발행일 2022년 3월 2일

2022년 3·4월호 제7권 제2호

(통권 제53호)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경제매거진(주)이 우리은행
PB 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SSN 2672-0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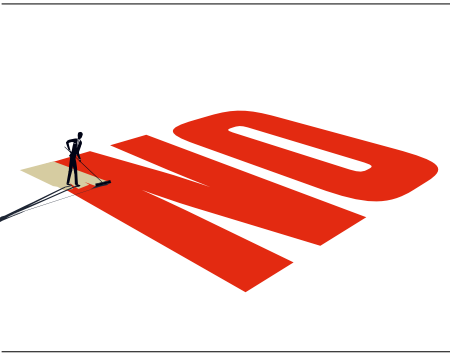
Welcome to TWO CHAIRS

Special 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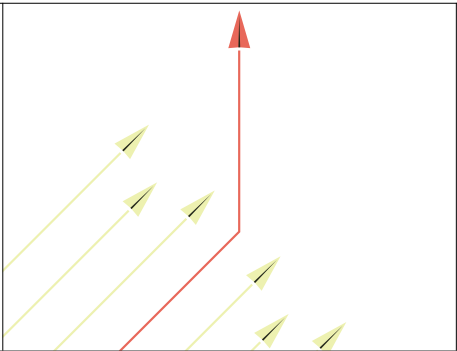
기술과 함께하는 일상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의 보편화 등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AI, 자율주행, IoT 등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기술이 불러온 일상의 변화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TWO CHAIRS 특화 센터	TWO CHAIRS Exclusive, TWO CHAIRS Premium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u>TWO CHAIRS Exclusive</u>	TCE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3312, 3367)
	TCE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TCE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4월 센터이전 예정 주소)	T. 02-562-7964(내선 610, 624)
<u>TWO CHAIRS Premium</u>	TCP잠실센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신천동) 롯데캐슬골드프라자 2층	T. 02-412-9082(내선 410, 420)
	TCP대치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대치동) 동하빌딩 1층	T. 02-501-1639(내선 520, 530)
	TCP청담센터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1층	T. 02-511-4909(내선 410, 420)
	TCP압구정센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74(신사동) 쌍봉빌딩 8층	T. 02-541-3473(내선 210, 211)
	TCP이촌센터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0(이촌동) 1층	T. 02-796-5151(내선 310, 410)
	TCP가산센터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가산동) 4층	T. 02-830-0646(내선 410, 420)
	TCP부산센터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 11(동광동1가) 2층	T. 051-257-9960(내선 202, 204)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전망 및 리스크분석, 해외투자 상담, 자산진단 및 포트폴리오 설계, 국내·해외 투자 상담 등	
	세무·회계자문서비스	절세(양도·소득·상속), 지방세·간접세·법인세 관련 상담, 기업승계·사업승계 등	
	부동산자문서비스	시장분석, 보유 부동산 진단, 부동산 매매 자문서비스, 부동산 개발 컨설팅 지원 등	

	How to go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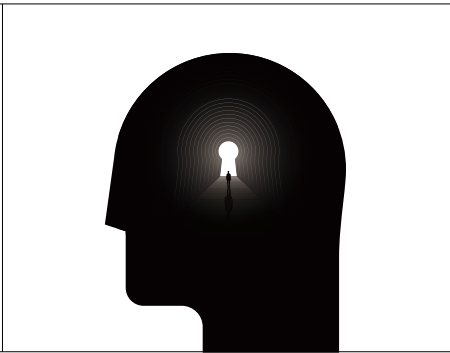
FURTHER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작동하고 있는 가장 심오한 것 중 하나다. 불이나 전기보다 더 심오하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행복은 나비다. 당신이 쫓아다니면 늘 잡을 수 없는 곳에 있지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당신에게 내려앉을지 모른다. -너새니얼 호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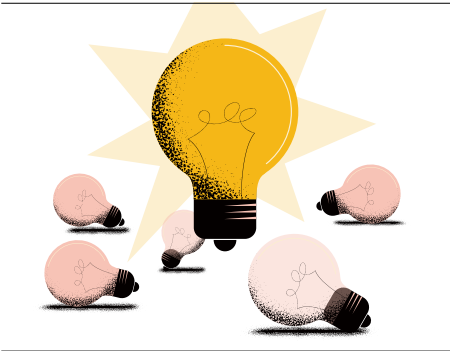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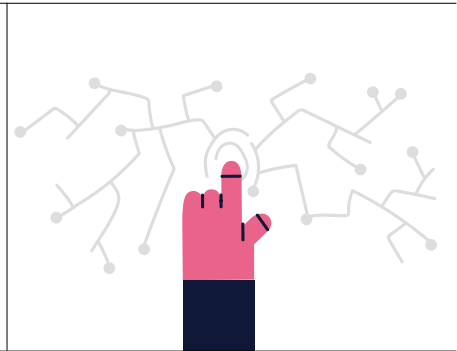
나는 우리가 이뤄온 것만큼이나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자랑스럽다.
혁신은 현존하는 수천 가지 것들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故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찰스 다윈 생물학자	
---	---	--

다(茶)를 마실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다산 정약용		무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괴테
---	---	---

꿈만 꾸던 것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한 주역은 바로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까요?
그 변화 안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으며 세상을 바라봐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상을 바꾸는 기술 변화의 현장을 통해 기술의 힘과 가능성, 그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기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어린 아이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의욕을 불어넣는 데는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	---	--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은
읽고, 생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앨빈 토플러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이브 생로랑		인생의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마리 퀴리 과학자
---	---	--



기술 트렌드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IT·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화두는 바로 '라이프 테크'. 팬데믹 장기화로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기술이 대거 등장했다.
그중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들
5개의 핵심 기술 키워드만 정리했다.

Writer: 유나리 Photo: 한경DB
Reference: <한경무크 CES 2022>(한국경제신문)



CES 현장 속으로
CES 2022의 공식 영상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CES를 알아보세요.

01. MARs

차에 타자 주변이 화성으로 바뀐다. 화성의 공기를 느끼고
바위 감촉도 느껴진다. 나 대신 아바타 로봇이 메타버스 공
간 안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사용자가 가상과 현실 세
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동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자동차는 이 기술을 '메타 모빌리티'라 이름 붙이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면에는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이 집약됐다. 메타버스, 인
공지능, 로봇이다. 지금까지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꾼 기술 중
하나인 PC, 인터넷의 다음 모습은 무엇일까? CES 2022 참
가 업체의 대답은 바로 MARs. 메타버스^{Metaverse}, 인공지능^{AI},
로보틱스^{Robotics} 셋을 모두 모은 'MARs'는 코로나19 3년 차
에 접어들며 바뀐 일상을 반영해 탄생한 미래 키워드다.

비즈니스부터 의사 결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할 인공지능,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더욱 주목받게
된 로보틱스, 이미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메타버스는 차
세대 모바일 시대의 주역으로 꼽힌다.

구현하기 어렵던 인간적 감정의 영역까지 판단해 놀람과
슬픔 등 감정 표현을 따라 하는 영국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메타버스로 쇼핑할 수
있게 한 롯데정보통신의 플랫폼 등은 MARs가 그린 환상적
세계를 경험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1. 현대카드의 메타 모빌리티
개념도
2. 엔지니어드 아츠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3. 롯데정보통신의 벤티얼 스텝



02. 미래 모빌리티

릭 베송의 영화 <제5원소> 속 브루스 윌리스의 직업은 택시기사다. 그 택시는 땅이 아닌 하늘을 난다. 이제 하늘을 날아 출퇴근할 날이 온다. CES 참가 기업인 스카이드라이브는 ‘날아서 출퇴근하는 꿈같은 미래’를 보여줬다. 회사의 주력 제품인 전기 수직이착륙기는 400kg까지 싣고 시속 40~50km로 날 수 있다.

하늘 사정은 이런데 땅은 어떨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2014년 처음 제시한 개념인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열차 모양도 캡슐로 바뀌 음속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온실가스와 소음도 없다. 머스크가 차세대 대중교통의 미래라며 주장한 이 개념을 CES에서 맛볼 수 있었다. 그가 설립한 보링 컴퍼니의 ‘베이저스 루프’는 CES의 주요 장소를 지하 터널로 연결해 전기차로 이동하며 미래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보링 컴퍼니는 현재 라스베이

거스 전역을 46km의 루프로 감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 외에 CES에서 공개된 현실화에 가까운 기술은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 탑재다. 그동안은 테슬라 등 전기차 스타트업이 흐름을 주도했다면, 이번엔 CES에 참가한 GM·포드·메르세데스-벤츠·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거 관련 기술을 선보이며 판을 주도한 만큼 변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1. 현대자동차의 메타 모빌리티가 그리는 미래 도시 풍경
2. 보링 컴퍼니의 베이저스 루프



03. 헬스 테크 르네상스

집에서 마치 강에 있는 듯 실감 나게 다른 사람과 함께 노는 운동을 한 후 피로도에 맞춰 로봇의 마사지를 받고, 코골이가 시작될 때쯤 베개가 알아서 내 몸 위치를 바꿔주는 세상이 온다. 각각 하이드로, 마사지 로보틱스, 10마인즈가 CES에 선보인 제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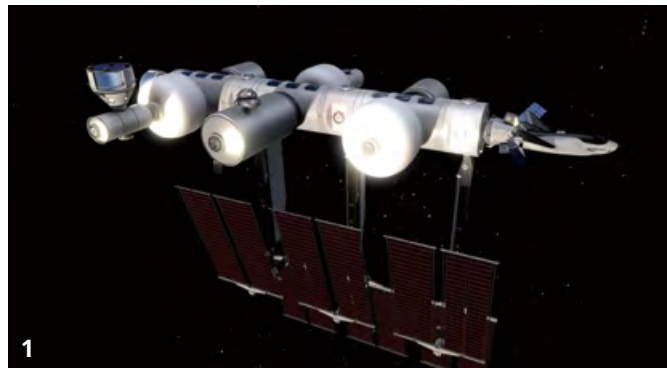
올해 CES는 ‘헬스케어 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만큼 개인 건강관리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길어진 팬데믹이 바꾼 실감 나는 변화다. 지난해까지는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 주로 선보였지만, 올해는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와 가상현실·휴머노이드 등을 접목한 헬스 테크가 주를 이뤘다.

하이드로의 로잉 머신 ‘하이드로 로어’는 자전거나 러닝 등에 국한됐던 집콕 운동을 노젓기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한 제품이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제로 노를 젓고 있는 듯 영상을 보여주고 물 튀기는 소리까지 들려준다.

또 전례 없는 팬데믹에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포드를 끼워 코로나19 검사를 일상적으로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랩힐이 내놓은 신속 진단 키트 ‘테스트&패스’는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그랩힐은 이 제품으로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코로나19 검사와 진단이 필수가 된 시대에 반가운 혁신이다.

1. 마사지 로보틱스의 마사지 로봇
2. 그랩힐의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04. 스페이스 오디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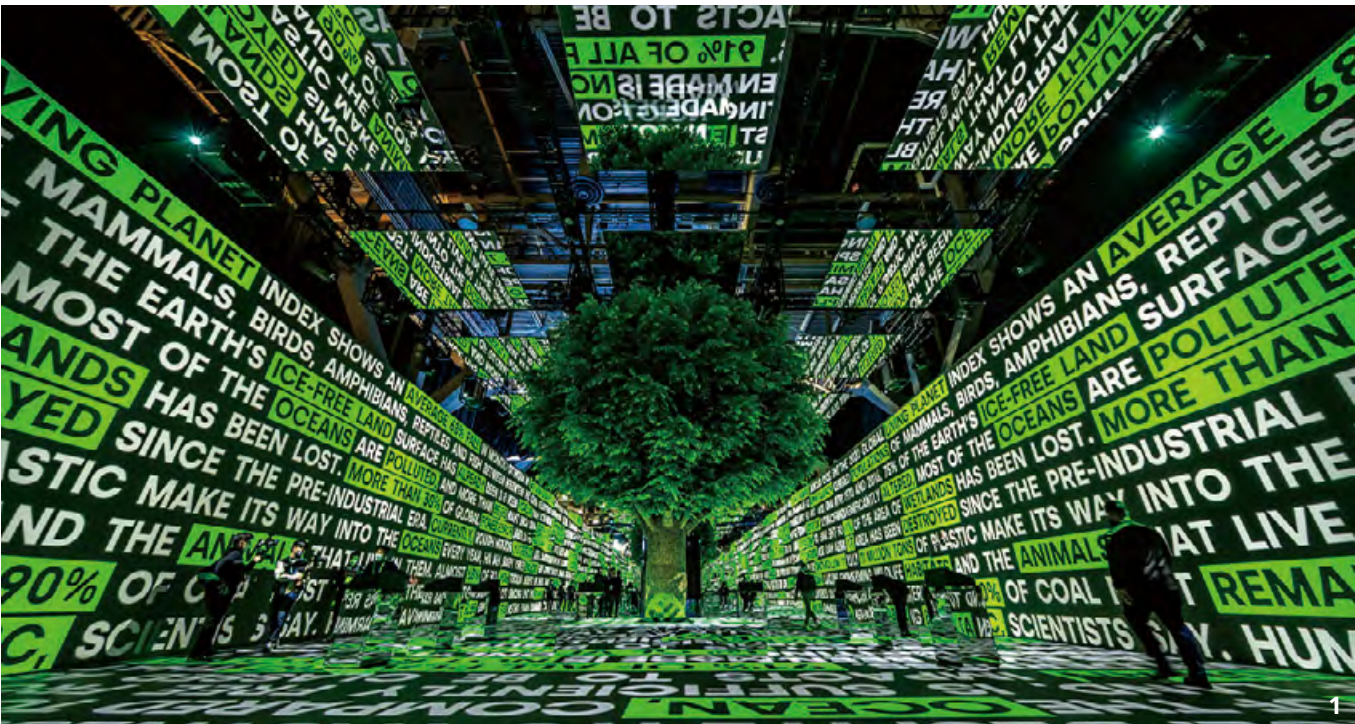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 발전은 우주 덕분이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으로 지금의 정보 기술^{IT} 혁명, AI 기술 기반 등이 마련됐다. 과거엔 우주가 국가 영역의 중대한 사명을 띤 프로젝트로 주로 육성됐다면, 앞으로는 비즈니스가 되고 대중화된다. 시에라 스페이스가 CES에서 선보인 상업

용 우주선 ‘드림 체이서’와 차세대 국제 우주정거장 ‘오비탈 리프’ 등은 우주가 생각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드림 체이서는 저궤도에서 지구 왕복 상업 여행이 가능한 유일한 민간 우주선으로, 일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획기적 차이점이다. 또 최소 열다섯 번은 사용할 수 있는 추진체에 우주여행 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 회귀 성능 등 여행을 하는 일반 고객 기준에 적합하게 변화했다.

노후해 지구에 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비탈 리프는 우주 복합 비즈니스 파크라 불려도 손색없을 만한 거대 규모로, 연구 개발은 물론 물류·관광·숙박·농업 등 우주탐사와 관련한 모든 비즈니스를 지원할 공간으로 기획됐다.

이제 창문 밖으로 대륙이나 해양 풍경 대신 우주 인증샷을 남기고, 우주정거장에서 관광할 날이 머지않았다.

1. 오비탈 리프
2. 시에라 스페이스의 드림 체이서



05.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앞에서 본 멋진 변화의 장면도 결국 지금 소개할 이 핵심 키워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난제를 위해 기업의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 구조 개선 등을 묻는 ESG다. ESG는 현재로서는 지구 파괴 속도를 줄이고 인류에게 미래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브레이크다.

미국 예일대 저널 논문 ‘성장의 한계 업데이트 2020’은 기술 진보와 인식 전환이 없다면 2050년 이후 경제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렇게 불붙은 환경 이슈는 지속적으로 강조해도 모자람 없는 주제라는 것이 CES에서 재확인됐다. 참가 기업들은 제품 생산부터 유통,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녹색 기술을 사용하거나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기술을 보여줬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생산 효율을 높인 스마트 공장을 제시한 포스코, 바다 오염의 주범인 해양 플라스틱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공개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친환경 수소에너지 솔루션을 선

보인 SK그룹·플러그워 등의 움직임이 반가운 이유다. LG전자는 실물 제품 없이 QR코드와 사진이 붙은 나무 기둥만 전시했다. QR코드를 찍으면 가상 체험관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접착제 없이 나무 찌꺼기를 압착해 만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부스를 꾸몄다. 가상현실 재현 기술과 친환경 의의까지 한꺼번에 보여준 영리한 사례다. 앞으로 이런 전시회 풍경을 자주 보길 기대한다. ●

1. SK그룹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 그간 기업이 진행한 탄소 감축의 노력을 담은 디지털 숲으로 꾸몄다.
2. LG전자의 CES 부스. 실물 없이 QR코드를 붙인 기둥만 출품했다.





AI와 사는 법

사물인터넷, 5G, 모바일 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를 바꿀 다양한 유망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온 AI 기술의 사례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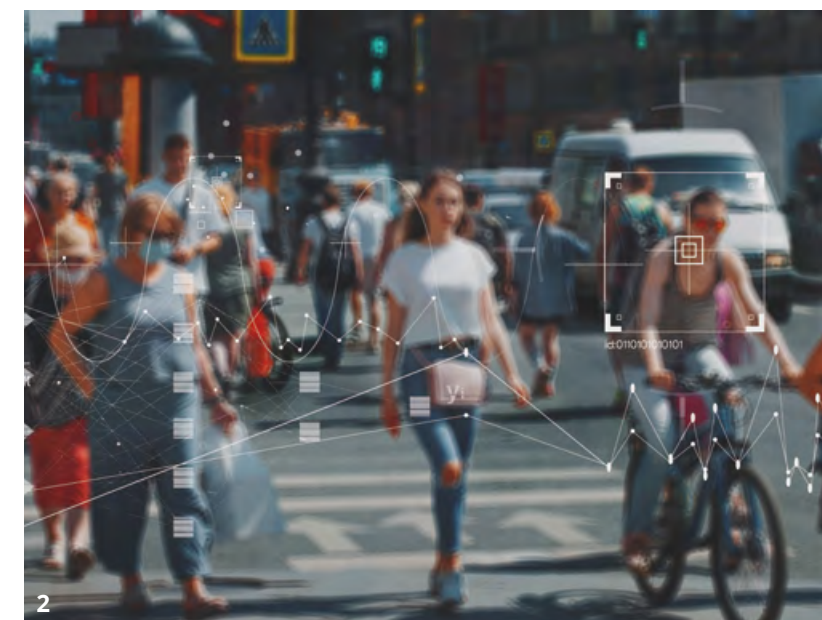
Writer: 한소영 Photo: 셔터스톡 Reference: <AI 소사이어티 AI Society>(김태현·이별찬, 미래의창)

‘AI 소사이어티’란

‘내 일상은 그다지 AI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 AI 사회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AI 사회에 가쁘히 안착한 단계일 수도 있겠다. 최근 발간된 <AI 소사이어티 AI Society>라는 책에 담긴 AI 구루이자 창신공장^{創新工場} CEO 리카이푸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이렇다. “이제 곧 아무도 AI를 화두로 삼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인터넷처럼 모든 영역에 쓰이지만, 그만큼 공기같이 자연스러워 신경 쓰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 공연 티켓을 샀거나 옷을 주문했다고 말하면 당연히 게 온라인에서 한 행위로 간주하지요. 그렇게 AI도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AI 소사이어티’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AI}과 인간 사회^{소사이어티}가 탄생시킨 새로운 사회를 말한다. AI가 탑재된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로 옮겨가고 있고, AI의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콘텐츠와 우리가 교류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까지도 미리 알고 제안한다. 인간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건강진단은 획기적인 질병 예방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AI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이란 점에서 특별하다. 스마트폰 앱, 가정용 전자 기기, 웹 페이지 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AI는 범용 기술로 이 기기와 서비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AI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대신 결정해준다. AI가 바뀐 세상은 오지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인간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간다면 모를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AI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 이것을 AI 소사이어티가 아니면 무어라 부를 수 있을까.



1. AI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읽거나 볼 뉴스와 영상을 메인 화면에 띄운다.
2. 혼자 있는 시간에도 사물인터넷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현대의 개인들



AI 카메라, AI 안경 등의 개발은 AI 기술이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 상품도 좋아합니다’

2020년에 발간돼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팩트폴니스>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통해 세상이 전례 없이 풍요로워졌다고 주장한다. 그중 한 증거가 창작물의 양. 매년 새롭게 나오는 창작물의 양은 노래 800만 곡, 책 200만 권, 영화 1만6,000편, 블로그 포스트 300억 개, 트윗 1,820억 개, 제품 40만 종에 이른다. 한 개인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다. 고로 개인에게는 더 많은 창작물이 생겼다가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정해 보인다. 하나를 골라야 할 때 더 많은 선택지 앞에서 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정 피로^{Decision Fatigue}’를 불러오기도 한다. 어찌 됐든 결정하는 일을 피해갈 수는 없고, 효과적인 선택을 통해 창작물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할 터. 이때 AI가 쏟아지는 창작물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추천해준다. 미국의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존에서는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 상품도 좋아합니다’라는 식의 AI 상품 추천이 매출로 이어지는 규모가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라

고 한다.

미국의 OTT 기업 넷플릭스의 성공 뒤에도 고객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이 있었다. 넷플릭스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고객이 어떤 콘텐츠를 검색하는지, 어떤 영화를 다시 시청하는지를 빅데이터로 추적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AI가 맡는다. 이제 사람들도 이 추천 코너를 유심히 본다. 취향에 들어맞을 때면 흠칫 흠칫 놀라게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놀라는 일이 적어질지 모른다. 예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 게 익숙해졌다는 의미에서.

나의 또 다른 눈, AI

2021년 3월 미국 조지아 대학교 AI 연구소가 AI를 사용한 시각장애인 보조 배낭을 공개했다. 배낭에는 AI 카메라와 GPS 장치가 달린 노트북이 탑재됐다. AI 카메라는 시각장애인의 ‘시력’ 역할을 한다.

AI 카메라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도로 표지판을 읽고, 다양한 장애물을 인식한다. 이 정보들을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사용자는 음성 안내를 통해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건널목 신호 등의 색깔을 알 수 있다.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보낼 수도 있다는 점도 유용한 기능 중 하나다. AI 배낭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진은 AI 안내 시스템을 선글라스 형태로 구현하는 연구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각국의 여러 기업에서 진행 중이다. 그만큼 빠르게 상용화될 기대를 모으고 있다.

AI 소사이어티에서 기계는 인간의 능력을 빌리고, 인간은 다시 기계의 능력으로 이상적인 신체 기능을 찾아나간다. 인간이 신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선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고,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대응·발전해나가는 AI 기술이 필요하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 고된 업

무를 손쉽게 수행하게 되기도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정적일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트럭에 접목한다면 아마 노인도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미래엔 신체적 한계 때문에 주저해야 하는 순간이 줄어들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AI를 믿고 의지하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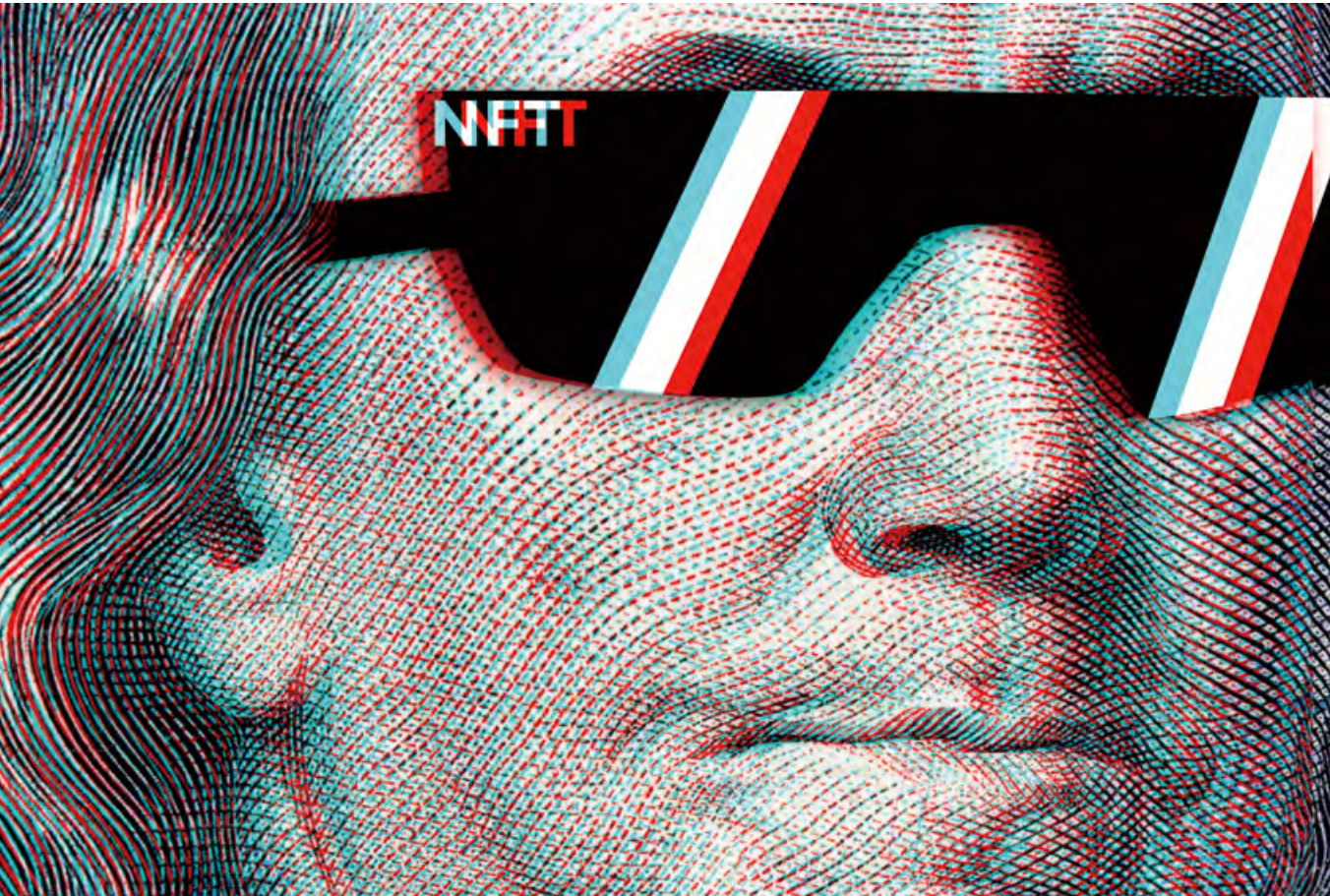
‘결국에는 기계가 이길 것.’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17년 8월 트위터에 올린 문구다. 한편 스티븐 호킹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한 콘퍼런스에서 “인류가 AI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AI는 인류 문명사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AI와 기계에 무작정 겁먹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는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AI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AI는 인류 최대 발전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AI에 대해 잘 모른다. 다만 다음 사례를 보면 AI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한국기원에서

열린 프로 바둑 기사 입단 대회에서 한 선수가 귀에 붕대를 감고 출전해 귓속에 이어폰을 꽂고 대국 내내 AI가 알려주는 착점을 전달받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AI를 의지한 결과가 이런다면 곤란할 것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콜센터 AI가 응대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AI가 인간의 일을 줄여줬다고 한다. AI로 대체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양질의 다른 일 자리를 얻었을까? 혹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여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됐을까? 세심하고 빠른 직원의 대응 대신 답답하고 따분한 AI의 안내 멘트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고객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이다. AI 사회로의 전환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장애를 지닌 이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준다는 점만을 본다면 인간적이기 그지없다. 우리는 AI가 제공하는 수많은 맞춤형 서비스에 둘러싸여 산다. 개인의 인격과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극과 도전 과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AI와 공존하면서도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과 가능성은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



고된 업무를 손쉽게 하는 AI 기술. 그 상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손에 꼽힌다.



NFT 사용 설명서

지금 명품 브랜드, 미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는 NFT.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열광할까? 알 듯 말 듯 모호한 NFT의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핵심만 뽑아 정리했다.

Writer: 유나리 Photo: 셔터스톡, 한경DB



Q1. NFT, 도대체 뭡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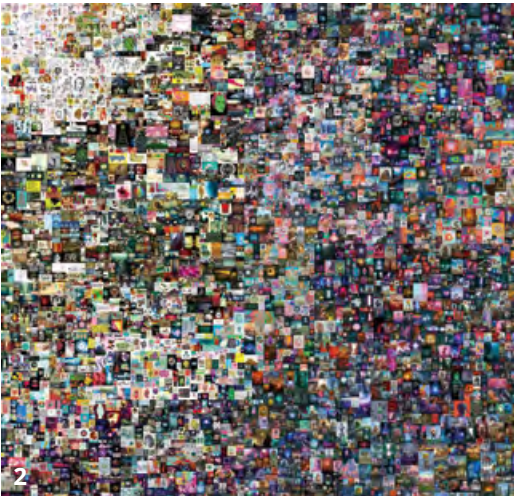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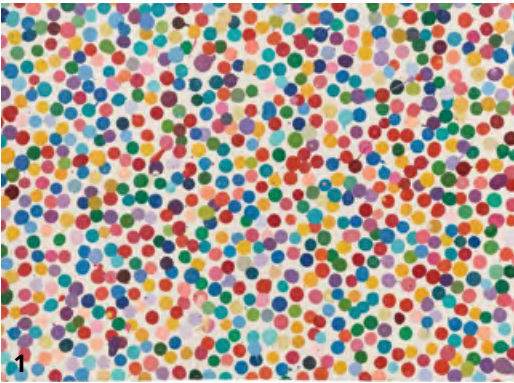
요즘 열풍의 주역인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다. NFT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영국 사전 출판사 콜린스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블록체인에 등록된 유일한 디지털 증명서로, 미술품과 수집품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복제가 난무해 원본의 진위와 가치를 가리기 어려워지는 요즘, 복사^{Ctrl+C}와 붙여 넣기^{Ctrl+V}가 불가능한 디지털 정품 인증서 같은 것이라 보면 된다.

Q2. 어떻게 만들어질까?

특정 미디어 파일에 고유성을 표시하는 식별자, 작품명이나 계약 조건 등이 담긴 파일의 속성 등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추가해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디지털 파일을 NFT로 변환하는 것을 토큰화^{Tokenize}, 민팅^{Minting}이라고 부른다.



Q3. 도대체 왜 뜨는 거야?



일단 누구나 디지털화된 어떤 것이든 사고팔 수 있다는, 접근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또 지금은 복제가 난무하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소유권이 희미해진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값과 진품을 환산하기 어려운 분야에 원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도입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작품에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부여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인 ‘소유’를 현실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

얼마 전 구슬땀을 흘리며 목공을 하는 라이브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강동원은 그 비디오를 NFT로 발행해 119개 한정 판매했다. 딱 119개만 원본이라 인정한 것. 각각의 NFT는 고유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고,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 1번부터 119번까지 모두 같은 영상이지만 각각의 NFT가 다르다. 이 에디션을 구매한 사람은 강동원과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원본이라는 희소성을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갖기 가장 어려운 디지털 시대를 살며 ‘희소성’이라는 가치에 끌리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한다.

1. NFT 판화로 판매된 데이미언 허스트의 ‘더 커런시’
2. 지난해 3월 약 785억원에 낙찰되며 NFT 시장의 전성기를 연 디지털 화가 비플(본명은 마이크 윈켈먼)의 NFT 그림 ‘매일: 첫 500일’. 비플은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세 번째로 몸값이 높은 생존 작가에 등극하며 NFT 미술 시장의 상징적 존재가 됐다.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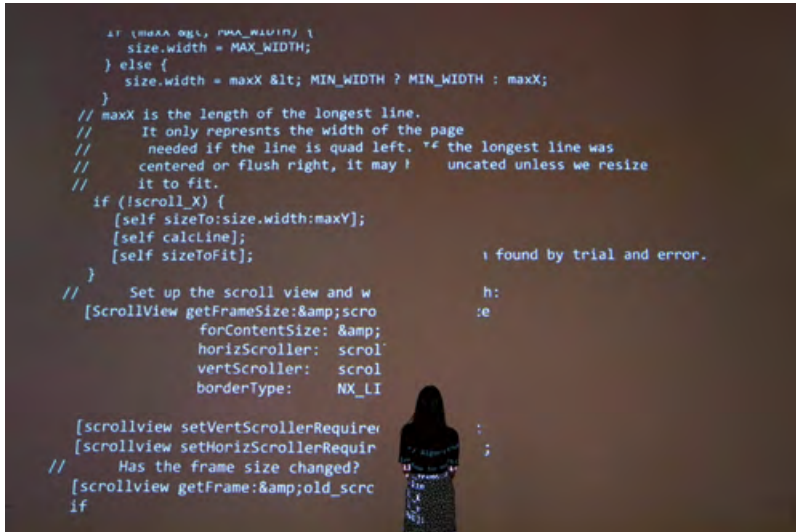
언제부터 인기를 끌었을까?

2014년경 유사한 개념이 구현된 바 있고, 실현화를 도운 것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다. 이더리움에는 다른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용된 코인을 토큰이라고 부른다. 토큰은 액면이 있는 것과 액면 없이 식별자만 넣어 발행하는 것이 있다. 후자가 바로 NFT이고, 2016년경 만들어졌다.

이렇게 등장한 지는 좀 된 개념이지만,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대중화됐다.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트위터 창립자 잭 도시가 처음으로 작성한 트윗이 NFT화되어 경매에서 한화약 33억원에 판매되면서부터다. 이후 복제가 쉽고 실물이 없어 가치를 측정하고 인정받기 어렵던 디지털 아트 시장에 적극 뛰어들며 급성장했다. 세계 최대의 NFT 플랫폼 ‘오픈시’의 누적 거래액은 작년 말 기준 16조 원에 달할 정도다.



성장의 도화선이 된 잭 도시의 트윗. NFT화되며 경매에서 약 33억원에 팔렸다.



‘인터넷의 아버지’ 팀 버너스 리의 ‘WWW 소스 코드’도 소더비 NFT 경매에 나왔다.

Q5.

NFT 작품을 사면 실물을 받을 수 있나?

도대체 뭘 사는 거지?

NFT 미술 작품을 샀다고 치자. 어떤 유형의 실물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받는 것은 정보가 담긴 아주 긴 URL이다. 화랑처럼 벽에 걸어놓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Q6.

주식처럼 사고파나? 거래는 어떻게 할까?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 디지털 지갑을 만든다. 디지털 지갑은 계좌 같은 것으로, 자산 거래는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로 진행된다. 다음은 계좌에 돈을 넣을 차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내 계좌에 넣거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사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수수료가 붙는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사고 싶은 NFT를 찾을 차례. 글로벌 최대 마켓 오픈시 Opensea를 가장 많이 쓴다. 마음에 드는 것을 구매했다면 NFT에 판매자와 구매자, 가격과 구매 시점 등의 정보가 위조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 구매한 자산을 판매하거나 내가 가진 디지털 자산을 민팅해 NFT 시장에 팔 수도 있다.

Q7

논란은 없을까?

당연히 논란이 있다. 실제 한 NFT 브랜드가 유명 명품 브랜드 가방에 다양한 색채를 입힌 디지털 작품으로 거액의 판매 수익을 거두자, 가방의 디자인권을 지닌 해당 브랜드가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NFT 제작사를 고소한 것. 유명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도 지난해 11월, 자신의 영화 <필름 픽션>의 미공개 영상과 대본 등을 NFT로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시네필을 두근거리게 한 뉴스였지만, 해당 영화 제작사인 미라맥스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부여된 대상을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활용해 NFT를 발행했다면 문제가 된다. 아직까지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나 투자 시 가이드라인 등이 명확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 투기 수단으로 쓰이면서 잡음도 나온다. 오픈시에 이어 떠오르는 제2의 NFT 거래소 룩스레이 LooksRare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손잡고 거래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 거래가 발각되기도 했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 백 디자인을 사용해 만든 NFT 작품 ‘메타버킨’

Q8

계속 뜰까?

NFT 열풍은 적어도 한동안은 가라앉지 않을 듯 보인다. 예술계 외에도 연예 기획사, 프로덕션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NFT에 속속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SNS 플랫폼도 적극 진출을 꾀하고 있다. 명품 업체는 개런티 카드 대신 NFT를 발행한다. 국내 한 기업은 전 세계 최초로 유전자 정보를 NFT에 넣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NFT의 영역은 앞으로도 꾸준히 확장될 것이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 라인테크플러스는 전 세계 NFT 시장 규모가 2020년 20조원에서 2025년 23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한 벤처기업가는 “사람들이 NFT를 구매하는 것은 어떤 기분을 사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나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고, 독특한 것을 고를 취향과 안목이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NFT가 가진 허상도 정확하게 보여준다. 허상의 힘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더 지켜볼 일이다. ●

즐거찾기 해둘 곳

오픈 마켓 플레이스

오픈시(opensea.io)
레이어블(rarible.com)

글로벌 NFT 아트 플랫폼

슈퍼레이(superrare.com)
노운오리진(knownorigin.io)

NFT 정보 제공 사이트

넌펀저블닷컴(nonfungible.com)



‘좋아요’가 키우고 ‘언택트’가 확장시킨 쇼핑 시장 라이크 커머스

요즘 인플루언서는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넘어 상품의 기획과 출시, 판매까지 한다.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인플루언서 판매 상품의 주문 버튼까지 누르게 되는, 요즘 대세 ‘라이크 커머스’ 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Writer: 한소영 Photo: 서터스톡

‘좋아요’ 누르듯 쇼핑하다

이미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지금은 바야흐로 ‘1인 미디어의 시대’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있으니 화면 아래로 자막 하나가 보일 듯 말 듯 떠오른다.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막 건강식품 온라인 몰에서 쇼핑을 했다면 배송 온 상품을 나열해놓고 하나씩 소개하려던 찰나였다. 상품들의 간단한 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그 건강식품 사이트를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봤다. ‘참, 나도 저런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면서. 찾아 들어간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넣어 주문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분. 유튜브 방송에는 PPL 광고도 있고, 심지어 영상을 보는 중에 봐야 하는 중간 광고도 있다. 그런데 그 광고가 꽤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필요에 따라 쇼핑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고, 우리는 언제든 쇼핑할 태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따로 시간 내 쇼핑을 한다기보다 상시로 보게 되는 SNS 콘텐츠에서 발견한 물건에 소비 욕구를 느끼고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좋아요’를 누르듯 손가락 몇 번 움직임 상품이 집까지 배송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러한 1인 미디어를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 즉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들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상품을 기획·판매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를 ‘라이크 커머스’라 부른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꼽은 ‘2022년을 이끌 10대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이크 커머스다. 소비자들이 ‘좋아요 Like’를 누르는 데서 구매가 시작된다고 해서 명명된 차세대 유통시장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SNS}와 같은 1인 미디어의 세상이 열리면서 더욱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라이크 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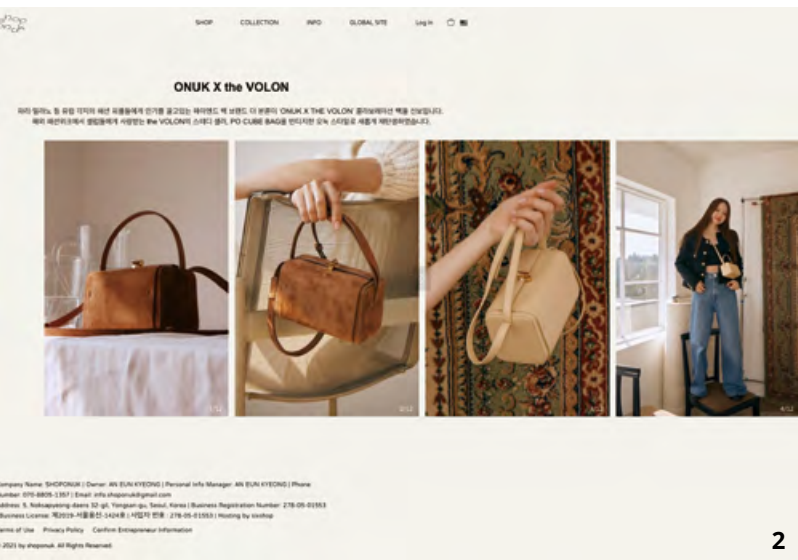
초기 인플루언서들이 기성 제품의 광고와 판매에 집중하던 것을 넘어 지금은 직접 쇼핑물이나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 기획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담당한다.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직접 셀러가 되어 판매하는 형태가 C2C^{Customer to Customer} 모델이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은 제품 홍보를 넘어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해 마케팅한다.



1



2

- 1세대 인플루언서가 만든 브랜드로 통하는 ‘스타일난다’는 대표적 라이프 커머스 성공 사례다.
- 유명 유튜버 오녹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제품을 만들고, 자신의 브랜드까지 론칭했다.

1세대 인플루언서라 할 수 있는 김소희 전 대표가 로레알 프로페셔널에 6,000억원에 매각한 ‘스타일난다’가 초특급 성공 사례다. 나무위키에도 등록된 유명 유튜버 오녹Onuk은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쇼핑 몰 ‘샵오녹’을 오픈하고, 패션 브랜드 ‘시시아사우르스’까지 론칭했다.

쇼핑이 상시화된 시대에는 재미있고 공감할 만한 콘텐츠 속에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플루언서들은 이 점에 특화돼 있다. 이들은 연예인과 달리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팬들, 즉 소비자와 직접 소통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을 빨리 캐치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정확히 만들어낸다.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구독하는 소비자이자 팬들은 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플루언서의 제품에 열광하며, 기꺼이 구매한다.

기능의 평준화와 ‘언택트’ 사회가 불러온 기회

상품의 기능은 물론 중요한 구매 판단 기준이다. 하지만 기능만으로 상품 간 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좋은 기능을 비슷비슷하게 갖춘 제품은 너무나 많다.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다. 명품 브랜드는 물론이고 뛰어난 디자인을 갖춘 중저가 브랜드 역시 많다.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 노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떤 걸 골라야 할까?’라는 선택의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조 기업들이 기능이나 디자인만으로 자사의 물건을 사야 한다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설득하는 역할이 인플루언서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는 소비 시장이 온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는 인플루언서에겐 호시절이 된 셈이다. 인플루언서는 유통망을 확보해 매장을 차리는 대신 디지털 노매드 Digital Nomad 방식으로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팬들을 끌어모은다.

다양한 기회 열어줄 라이프 커머스 시장

물론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다. 품질 이슈가 떠오르면서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 화장품 등 안전과 위생이 중요한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킨 제품을 만든 인플루언서는 다시 일어서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규모가 작은 회사가 사업 초기에 겪는 성장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가 MCN^MMulti Channel Network이다. MCN은 일종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인플루언서를 관리하고 이들의 커머스 활동을 지원한다.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문제를 일으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능이다.

라이프 커머스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이 새로운 생태계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을 꼽는다. 자본이 부족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시니어층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고 선보일 수 있는 장벽이 낮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생동하는 시장에서는 기업화한 인플루언서만이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잃는다. 이미 제2, 제3의 ‘스타일난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기반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제조비 부담을 덜고 일정한 수량을 보장하면서 생산에 더욱 쉽게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제조 공장과 개인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ODM^O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업체와의 협업도 쉬워지고 있다. 라이프 커머스 시장은 나를 위해 종일 열려 있는 매장과도 같다. 심지어 이 매장은 공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로 가득하다. ‘좋아요’를 누르는 손이 ‘구매하기’ 버튼으로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라이프 커머스 시장에 참여하면 소비자는 쇼핑의 즐거움이 배가되고, 생산자는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도 라이프 커머스 시장에서 유용한 쇼핑을 즐겼는가? 쇼핑하지 않았다고? 과연 그럴까?👤



라이프 커머스 이슈 살펴보기



탄생! 넷플릭스닷컴netflix.shop

넷플릭스가 온라인 쇼핑몰 넷플릭스닷컴을 만들며 커머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팬들을 거느린 콘텐츠 회사가 커머스에 진출한 사례로,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 등 콘텐츠와 연관된 굿즈를 판매한다. 영화에 ‘좋아요’로 반응한 관객들을 기념품숍으로 끌어들이는 구조가 온라인에서 재현된 셈이다.

브랜드의 D2C 트렌드

D2C^DDirect to Consumer는 제조업체가 직접 자사 물건을 개설하는 모델로, 라이프 커머스의 일환이다. ‘좋아요’하는 팬들을 확보한 브랜드가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넘어 직접 상품을 팔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어 유통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2019년 나이키가 아마존을 탈피해 자사 물 판매에 집중한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D2C가 차세대 이커머스 전략으로 통하고 있다. hy(구 한국야쿠르트)는 온라인몰 ‘프레딧’에서 유제품·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패션 기업 한섬도 자사 물 ‘더한섬닷컴’을 강화하고 있다. 더한섬닷컴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나 늘었다.

해마다 3배 성장한 ‘오늘의집’ohou.se

‘오늘의집’은 콘텐츠와 커뮤니티, 커머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비스다. 세련된 인테리어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 사진을 콘텐츠로 공유하면 이를 다른 유저들이 보면서 자신의 취향을 찾고, 자연스럽게 해당 콘텐츠에 등장한 아이템의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의집만의 태그 버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공간 사진 속 원하는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의 정보 확인과 구매가 가능하다. 제품을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다. 다른 이의 집을 구경하는 재미로 시작해 ‘좋아요’와 구매로 이어지는 라이프 커머스. 오늘의집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로, 해마다 3배 규모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도의 시대를 사는 법



가파른 속도의 시대다. 해가 바뀌기도 전에 수십 종의 트렌드 관련 서적이 쏟아지고, 기술 변화가 바꿀 장밋빛 미래를 전망한다. 변화 속도도 빠르는데, 그에 발맞추기 위해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할 것도 점점 많아진다.

예스24가 집계한 트렌드 분석 도서의 대표작인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가장 많이 구매한 층이 40대라는 사실은 조금 웃프다.

‘혁신’, ‘변화’, ‘트렌드’라는 단어가 주는 피로감도 배가된다. 속도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는 개별적인 것인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트렌드 코리아 2022> 표지엔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고 적혀 있다. 방법을 찾기 위해 다 같은 속도로 가야 할까?

빨라서 안 보이는 것들에 질문을

속도를 늦추는 법 중 하나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왜’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생각하는 습관을 잊지 말 것. 인공지능이 대신 생각하고 실행해주는 시대에 생각하는 능력만큼 귀한 게 없다.

기술 변화와 상황은 일상과 사고방식을 바꾼다. 코로나19로 사회는 전보다 ‘개인화’되고 ‘파편화’했지만, 발전한 기술은 그 파편들을 엮어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술 발전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따라가기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으며 사는 법에 관한 짧은 단상.

Writer: 유나리 Photo: 셔터스톡

4차 산업혁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소형 항공기로 출퇴근을 하고, 인공지능 비서에게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명령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살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인공지능 비서가 상주할 넓은 집이 있어야 하며, 최신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걸 다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까? 일찍이 2016년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밝은 미래를 청송했던 다보스 포럼은 2017년 입장을 바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벌어질 불평등과 양극화가 미래 10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빠른 속도로는 소외된 자들을 조명할 수 없다. 어쩌면 기술 발전을 찬양하는 능력보다 필요한 것은 인류애가 아닐까.

나를 넘어 우리를

김난도 교수는 올해 트렌드 중 하나로 ‘오롯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나노 사회’를 꼽은 바 있다. ‘개인’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된다는 것이다. 올해는 관광 트렌드도 ‘나의 특별한 순간’이다. ‘현재’와 ‘나’의 행복은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올해는 더 중요하단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핵심은 ‘어떻게’ 오롯이 스스로를 책임지며 나의 특별한 순간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일찍이 괴테가 남긴 명언을 다시 들춰보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어디로 어떻게 갈지 질문할 때다. ●

PLUS 읽어볼 만한 책



<궁극의 질문들>
김낙우 외 지음, 사이언스북스
우주, 생명, 미래에 관한 최첨단 이슈를 질문 형식으로 풀어주는 책. 지금 돌아가는 기술 발전 양상에 대한 기초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4차 산업혁명이 막막한 당신에게>
박재용 지음, 부리라이파리
‘여전히 불행할 99%를 위한 실전 교양’이라는 촌철살인의 부재가 눈길을 끈다. 발전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책. 실전 교양서답게 쉽게 읽힌다.



<이렇게 인간이 되었습니다>
박재용 지음, 엠아이디
어떻게든 생존해온 경이로운 인간의 진화 능력을 되짚어보는 책. 과거를 통해 우리의 진화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이·버네사 우즈 지음, 디플롯
인류 진화의 진짜 무기는 기술 발전이 아닌, 다정함이라는 것을 과학과 논리로 풀어내는 독특한 책.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우리은행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주식·채권 투자, 리스크, 경제전망,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최적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증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대일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관리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가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부동산 시장 분석부터 투자 상담 서비스까지 부동산과 금융이 만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해외 이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LIF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 등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속 판타지가 현실이 되다 뉴질랜드

지구상에서 판타지 세계와 가장 비슷한 곳을 꼽는다면 단연 뉴질랜드일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 <호빗> 시리즈의 올 로케이션 촬영지인 뉴질랜드는 신화와 마법의 세계인 ‘중간계^{Middle-earth}’가 실제 존재할 것만 같은 신비로운 대자연을 품고 있다.

활화산부터 만년설과 빙하 지대까지 뉴질랜드의 매혹적인 풍경으로 안내한다.

Editor: 두경아 Photo: 뉴질랜드 관광청, 셔터스톡

뉴질랜드 남섬에서 가장 큰 강인 클러서강^{Clutha River}은 아름다운 산책로를 유명하다.



〈반지의 제왕〉, 〈호빗〉 촬영 현장

뉴질랜드 속 중간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만나보세요.

뉴질랜드는 세계적 영화 거장들에게 특별히 사랑받아온 나라다. 판타지 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의 올 로케이션 촬영지였고, <나니아 연대기>, <킹콩>, <엑스맨 탄생: 울버린>, <피아노>, <라스트 사무라이> 등 영상미로 유명한 작품들도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다.

뉴질랜드의 다채로운 자연 풍광 덕분이다. 광활한 황금빛 들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산봉우리, 뜨거운 용암을 뿜어내는 활화산, 신비로운 호수, 질퍽질퍽한 늪, 아열대 삼림, 빙하와 피오르까지... 뉴질랜드에는 태초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매혹적인 풍경이 가득하다. 덕분에 <반지의 제왕> 속 신화와 마법의 세계인 ‘중간계’를 재현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다. 뉴질랜드 내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의 영화 촬영지는 150여 곳에 이르며, 영화 촬영지를 찾아가는 투어가 20년째 호황이다.

태평양 남서쪽에 있는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섬은 면적의 63%가 산지와 언덕이며, 화산이 많다. 여전히 활동 중인 활화산도 많아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온천과 간헐천도 곳곳에 있어 관광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다. 북섬과 쿡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섬은 남알프스산맥이 길게 뻗어 있고, 고산지에는 빙하지형이 발달했다. 여기에는 과거 빙하기에 형성된 장대한 유자곡(피오르)과 여러 빙하호가 장관을 이룬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을 그저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액티비티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동굴 탐험, 카약부터 트레킹, 하이킹, 사이클링까지 상상 그 이상인데, 특히 트레킹과 하이킹은 뉴질랜드의 광대한 대자연을 탐험하기에 완벽한 방법이다. 해안에서부터 농지, 강, 계곡, 울창한 숲 등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갖춰 전 세계 트레커들에게 천국으로 통한다.



〈반지의 제왕〉속 호빗족 마을이 그대로! 마타마타

뉴질랜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오클랜드에서 자동차로 2시간쯤 가면 푸른 농장 지대인 와이카토 Waikato 지방에 다다른다. 이 지방의 소도시 마타마타 Matamata에는 호비턴 영화 세트장이 들어서 있는데, 영화에서 호빗족이 사는 샤이어 마을 The Shire 장면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다른 세트장과 마찬가지로 촬영이 끝난 뒤 모두 허물었으나, 이후 〈호빗〉 시리즈 촬영을 위해 재건한 뒤에는 영구 관광지로 운영 중이다.

호비턴에는 아름다운 언덕에 빌보와 프로도의 작은 집 ‘백엔드’를 포함해 동그란 나무 문이 달린 44채의 서로 다른 호빗의 집이 모여 있다. 마을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 파티 트리 Party Tree, 방앗간, 이중 아치교, 그린드래건 인 Green Dragon Inn 등 모든 것이 영화속 그대로다. 더욱이 실제로 호빗족이 사는 듯 마을 곳곳을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꾸며놓아 재미를 더한다. 수작업으로 만든 꿀과 치즈, 잘 가꾼 꽃과 호박이 가득하고, 심지어 빨랫줄에는 빨래도 걸려 있다.

활화산이 빚어낸 환상적 대자연 통가리로 국립공원

뉴질랜드 북섬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간헐천과 진흙탕, 온천수가 솟구치는 계곡이 많다. 특히 통가리로 국립공원 Tongariro National Park은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이롭고 다채로운 풍경으로 가득한 화산 지대다. 통가리로·나우루호에·루아페후 3개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메랄드빛 호수와 굳은 용암, 증기가 솟아오르는 분화구, 다양한 색깔의 실리카 테라스, 고산 특유의 식물 등 화산지형을 만날 수 있다. 이 지역 일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걷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세계 최고 당일 하이킹 코스로 꼽히는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 Tongariro Alpine Crossing’은 9시간 동안 나우루호에 산을 지나고 통가리로산을 넘어 19.4km를 하루에 완주하는 코스다. 걸으면서 만나는 화산 풍경과 타우포 호수, 타라나키산까지 바라보는 멋진 전망이 일품이다. 다만 활화산이니 떠나기 전에 화산활동 상황을 확인해보자.

- 1, 3 〈반지의 제왕〉속 호빗족 마을이 된 호비턴 영화세트장
- 2 통가리로 국립공원에서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굳은 용암, 분화구 등 화산 지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4 호비턴 영화 세트장 내 그린드래건 인에서는 직접 만든 수제 맥주를 판다.



도보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미식 도시 웰링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작은 수도’ 웰링턴은 아름다운 항만과 낮고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아기자기한 풍광을 자랑한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빅토리아산은 웰링턴 시내를 조망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높이 196m로 서울 남산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걸어 오를 수 있다. 또 다른 전망 명소는 켈번 전망대다. 이곳은 웰링턴의 명물 케이블카를 타고 달을 수 있다.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빨간색 케이블카는 레트로풍 외관 덕분에 웰링턴 여행 사진에서 빠지지 않는다.

뉴욕보다 인구 대비 레스토랑 수가 많은 웰링턴은 미식 여행지이기도 하다. CNN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커피 도시 중 하나로,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다. 웰링턴은 맥주로도 유명한데, 시내 곳곳에 수제 맥주 펍이 있어 입맛에 맞는 인생 맥주를 찾을 수도 있다.

이곳에는 <반지의 제왕>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웨타 워크숍’이 있으며, ‘웨타 케이브’에서는 이와 연계된 시설 관람과 투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1.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관광지가 밀집해 도보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도시다.
2. 웰링턴 케이블카는 도심에서 켈번 전망대, 식물원, 카터 천문대까지 안내한다.



알프스산맥과 호수, 바다로 둘러싸인 대자연 캔터베리 & 크라이스트처치

3. 크라이스트처치의 도심을 지나는 에이번강은 140년 역사를 지닌 식물원을 지나 바다로 흐른다.
4.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에서는 만년설과 태즈먼 빙하가 압도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크라이스트처치&캔터베리Christchurch & Canterbury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대평원과 웅장한 알프스산맥, 청정 빙하 호수, 아름다운 항구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거친 해안선과 국립공원을 이루는 산악 지역 사이에는 줄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Aoraki/Mt. Cook National Park은 등반가와 하이커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다. 만년설과 더불어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빙하인 태즈먼 빙하(27km)가 압도적인 풍광을 만들어낸다. 이곳에 조성된 후커 밸리 트랙은 이 지역 최고의 반나절 하이킹 코스로 꼽힌다. 테카포 호수는 만년설과 푸른 호수, 수풀로 뒤덮여 그림 같다. 호수의 환상적인 빛깔은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이다. 날씨가 좋은 밤이면 투명한 밤하늘에 총총히 뜬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전통적인 영국 분위기와 더불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도시다. 이층 버스나 빈티지 자전거, 곤돌라, 트램을 비롯해 에드워드 시대풍의 고전적인 배 펀트(사각형 평저선)를 타고 도시를 탐험할 수 있다.



여왕의 정원만큼이나 우아한 리조트 도시
퀸스타운 & 인근 호수 도시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호숫가 마을 ‘퀸스타운 Queenstown’은 여왕이 살 만 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퀸스타운을 S자 형태로 감싸고 있는 와카티푸 호수 덕분에 호숫가를 따라 고급 리조트 타운이 형성돼 있다. 리조트에서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며 스파와 골프 등을 즐기거나 번지점프, 제트보트, 승마 트레킹, 래프팅, 리버 서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만끽하기 좋다. 와카티푸 호수 북쪽 끝에는 글레노키 Glenorchy와 파라다이스 계곡 Paradise Valley이 자리하고 있다.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 등 수많은 영화를 촬영한 곳으로, 천연 너도밤나무 숲과 이어지는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말을 타고 돌아보는 승마 트레킹은 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파라다이스 계곡은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 역을 맡은 배우 이언 매켈런이 “항상 마음속에 그려온 중간계 모습 그대로”라고 말한 바 있다.



극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신비로운 빙하의 세계
피오르랜드 국립공원

남섬 남서부에 위치한 피오르랜드 국립공원 Fiordland National Park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과 빙하가 녹은 물이 호수를 이룬 청정 지역이다. 빙하의 침식으로 생긴 날카로운 계곡과 깎아내린 듯한 절벽이 절경을 선사한다. 이 지역 모두 아름답지만, 피오르 중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투어가 가능한 곳은 밀퍼드사운드 Milford Sound다. ‘신의 조각품’이라 불리는 이곳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뉴질랜드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봉우리 마이티피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지역을 돌아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람선을 타는 것이다. 유람선에서 피오르를 감상하거나 펭귄, 돌고래 등 야생동물도 만날 수 있다. 등반가라면 무엇보다 이곳에 조성된 하이킹 트랙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길이 53km의 트랙은 테아나우 호수를 기점으로 여러 현수교와 나무 데크 길, 고개를 넘으며 환상적 풍경을 보여준다. ●



- 1, 2. 와카티푸 호수 북쪽 끝 글레노키는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로 선정될 만큼 신비로운 풍경을 자랑한다.
- 3. ‘신의 조각품’으로 불리는 밀퍼드사운드. 유람선을 타고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호빗족 마을에서 맥주 한잔!
호비턴 영화 세트장 투어



호비턴은 개인이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둘러봐야 한다. 투어는 티켓 오피스이자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모여 있는 샤이어 쉼터 (The Shire’s Rest)에서 시작한다. 가이드 투어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광활한 양떼 목장과 멀리 카이마이산맥을 감상하고 호비턴 내를 둘러볼 수 있다. 마지막 코스인 그린 드래건 인 펠에서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 투어는 오전 9시 30분부터 매일 3~5회 출발하며, 티켓 가격은 성인 89뉴질랜드달러(17세 이상), 청소년 44뉴질랜드달러(9세 이상), 8세 이하 무료, 패밀리 티켓 225뉴질랜드달러(성인 2명, 청소년 2명)다.

문의 www.hobbitontours.com

위치·교통편

호비턴 영화 세트장은 대개 오클랜드에서 출발한다. 오클랜드행 비행기는 현재 대한항공이 매주 화요일에 직항편을 운항하며, 에어뉴질랜드는 한 달에 1~2회 부정기적으로 운항 중이나 뉴질랜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교민이 아닌 관광객은 7월 이후부터 탑승 가능하다. 오클랜드에서 마타마타에 위치한 호비턴 영화 세트장까지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힘들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샤이어 쉼터에 주차한 뒤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거나 오클랜드에서 출발하는 당일 투어에 참여하면 된다. 당일 투어에는 가이드와 식사, 티켓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1

1. Ruth Asawa, installation view, Ruth Asawa, Life's Work at the Pulitzer Arts Foundation, St. Louis, 2018

2.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 체칠리아 알레마니

꿈처럼 펼쳐진 미술의 향연 미리 가본 베니스 비엔날레

오는 4월, 베니스 비엔날레가 공식 개막한다. 1895년 시작한 이래 지상 최고의 미술 축제로 꼽히는 국제 행사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꿈처럼 펼쳐진 미술의 향연을 만끽할 것이다.

Writer: 김재석(갤러리현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드디어 막 올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4월 23일, 마침내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막을 올린다. 11월 27일까지 장장 7개월에 걸쳐 진행될 올해 전시는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일정이 1년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1895년 시작한 이래, 이 초대형 전시 행사가 제때 열리지 못한 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시기뿐이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진두지휘하는 총감독은 이탈리아의 여성 큐레이터 체칠리아 알레마니 Cecilia Alemani. 그는 2011년부터 뉴욕의 공공 예술 프로그램 ‘하이 라인 아트 High Line Art’의 수석 큐레이터이자 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명성 높은 작가에게 공공 미술품을 의뢰해 뉴욕의 버려진 고가철도에 전시하는 하이 라인 아트의 프로그램은 늘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다. 알레마니는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버라 크루거 Barbara Kruger, 필리다 발로 Phyllida Barlow, 캐럴 보브 Carol Bove, 존 발데사리 John Baldessari, 라시드 존슨 Rashid Johnson, 엘 아나추이 El Anatsui 등의 작가와 협업하며 이들의 야



심에 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또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의 대표 작가인 시몬 리 Simone Leigh나 샘 듀란트 Sam Durant의 기념비적 작품을 선보이는 하이 라인 플린스 High Line Plinth 프로그램도 론칭했다.

이력만 살펴도 그가 비엔날레급의 거대 작품 제작과 프로젝트 기획에 최적화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2012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은 마시밀리아노 조니 Massimiliano Gioni가 그의 남편으로, 부부가 모두 베니스 비엔날레를 이끄는 영광을 안게 됐다.

꿈의 우유 The Milk of Dreams

알레마니와 베니스의 인연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이탈리아관 감독을 맡아 조르조 안드레오타 칼로 Giorgio Andreotta Calò, 아델리타 우스니-베이 Adelita Husni-Bey, 로베르토 쿠오기 Roberto Cuoghi의 대규모 설치 작품으로 ‘마술적 세계 The Magical World’라는 주제의 전시를 꾸렸다. 알레마니는 이번에도 ‘꿈’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꿈의 우유

The Milk of Dreams'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전시 타이틀과 주제는 영국의 초현실주의 여성 예술가 레오노라 캐링턴 Leonora Carrington이 발표한 동명의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알레마니는 이러한 주제를 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는 우리 삶이 상상의 프리즘을 거쳐 다시 가시화되는 마법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묘사하죠. 이 세계에서는 누구나 변신하거나 변형되며, 혹은 다른 사람이 나 무엇인가가 됩니다. 레오노라 캐링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다른 세계의 생물과 몸의 변형, 인간의 정의를 상상하는 여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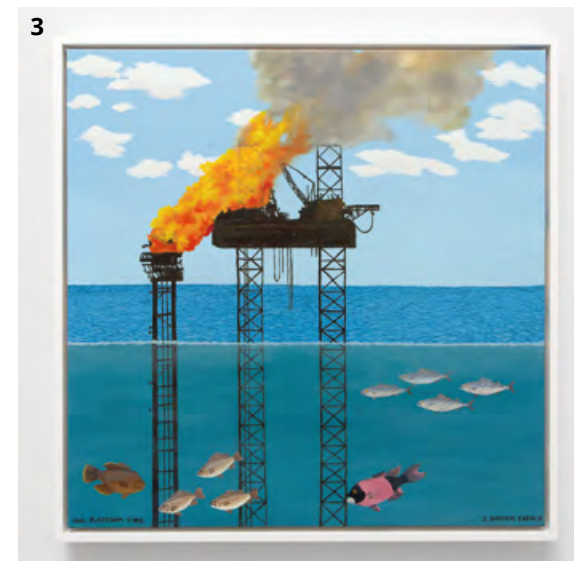
여성 and 신인 작가의 창의성에 주목

감독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았던 초현실주의자들의 아이디어에 기초를 두고, 이러한 주제를 함께 탐험할 작가를 찾았다. 전 세계 58개국의 작가 213명이 베니스로 초대받았다.

공식 발표한 리스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이다. 또 이 중

180명은 국제 전시에서 처음 참가할 정도로 글로벌 아트 신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감독의 이런 과감하고 전략적인 작가 선택에는 서구 백인 남성 중심의 지배적 서사에서 배제된 여성과 논바이너리 Non-binary 작가들의 풍부한 창조성에 주목하자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베니스로 집중되는 만큼 이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재조명이 전시와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 작가로는 정금형과 이미래가 참여한다. 신체에 관한 독창적 시각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두 작가의 작품만 떠올려도 비엔날레 전시장의 풍경이 그려지는 듯하다. 정금형은 일상 사물과 그로테스크한 성애의 몸짓을 보여주는 멜로드라마의 내러티브를 차용한 신체극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DIY 로봇 장난감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기계와 인간, 사물의 관계를 탐구 중이다. 이미래가 만든 기괴한 괴물 같은 비정형 기계장치는 피를 토하듯 끈적한 액체를 연신 쏟아내는데, 이는 인간 신체의 변형에 관한 감각을 또렷하게 일깨운다.



1. 베니스 비엔날레 주 행사장 파딜리오네 첸트랄레(Padiglione Centrale)
2. Geumhyung Jeong, 'Toy Prototype', 2021
3. Jessie Homer French, 'Oil Platform Fire', 2019
4. Solange Pessoa, 'Sonhíferas', 2020~2021



심오한 질문으로 가득 찬 전시장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공개할 작품 수는 총 1,430여 점에 이르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80개에 이른다. 알레마니는 이들 작품을 공생, 연대, 자매애의 관점으로 연결 지어 관람객에게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생명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며, 식물과 동물, 인간과 비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성,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등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근본적 조건을 성찰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신체의 재현과 변형, 개인과 기술의 관계, 인체와 지구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시가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중앙 파빌리온과 아르세날레

Arsenale에는 발견된 사물, 작품의 미니어처, 각종 도큐먼트 등으로 구성된 타임캡슐 형식의 작은 전시 5개를 구성할 예정이다. 알레마니는 이번 전시가 팬데믹에 관한 전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격변을 드러낼 것이라 강조한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듯, 현재와 같은 시대에 예술과 예술가들은 우리가 공존의 새로운 방식과 무한한 변신의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장을 알리는 한국관

총감독이 준비하는 본전시 이외에도 ‘미술 올림픽’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르디니Giardini와 아르세날레를 비롯해 베니스 곳곳에서 열리는 국가관 전시도 놓치지 말자. 올해 한국관은 이영철 큐레이터가 커미셔너를 맡아 작가이자 전자

음악 작곡가 김윤철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한국에서 전자 음악을, 독일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한 작가는 발광다이오드LED와 고분자 폴리머, 하이드로겔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고대 그리스신화에 착안한 빛을 발하는 기계장치를 완성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관 전시는 이탈리아 수도승의 이름과 김윤철 작가가 쓴 시를 결합한 ‘캄파넬라: 부푼 태양’을 주제로 삼았다. 이 밖에 비엔날레 기간 중 열리는 한국 미술 거장들의 전시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진용, 하종현, 박서보, 전광영 등의 베니스 프로젝트가 잇따라 공개된다. 이진용은 ‘그린다’는 행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며 화면을 보지 않고 신체의 제약 속에서 그려진 선으로 구성된 ‘보디스케이프Bodyscape’의 최신작을 팔라초 카보토에서 선보인다. 갤러리현대가 베니스 비엔날레 개최 기간 중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 Zhenya Machneva, 'Echo', 2021
2. Merikokeb Berhanu, 'Untitled LVII', 2021
3. Baya Mahieddine, 'Femme au Panier et Coq Rouge', 1947

지속해온 연속 전시 프로젝트로, 이승택과 이강소에 이어 세 번째 주인공으로 이진용의 전시를 준비했다. 베니스를 찾은 관람객이 이진용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신체-장소-소통이라는 핵심 주제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당신이 올해 단 하나의 국제 미술 행사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연 베니스 비엔날레가 첫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Adrian Deweerdt



건설 중인 뤼마 타워
뤼마 타워가 완성되기까지의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건축은 어떻게 도시를 살릴까?

LUMA Tower in Arles

고흐가 1년 남짓 거주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이던
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를이 지난해 새로운 명물을 갖게 됐다.
바로 프랑크 게리가 지은 ‘뤼마 타워’다.

Writer: 유나리 Photo: LUMA Arles

© Iwan Baan

건축물은 도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다. 그래서 도시마다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이나 특이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애쓴다. 그 때문에 가끔 과하거나 기괴한 결과물이 생기기도 한다. 여기, 그 역효과는 견어내고 도시를 아름답게 살린 좋은 사례가 있다.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지은 뤼마 타워^{LUMA Tower}는 쇠락하던 낡은 도시를 단숨에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뤼마 타워가 있는 도시 아를^{Arles}은 옛 로마 시대의 자취가 많이 남은 인구 5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다. 이 도시를 알린 것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가 아를에서 1년 반 정도 짧게 머물며 남긴 작품으로 많은 사람이 그의 자취를 좇아 아를을 방문한다. 그 외에 아를을 알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를은 지금보다 고대에 더 번창한 도시다. 작고 안온한 예술가의 도시는 점차 쇠락해 잊혀가고 있었다.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 나선 사람은 바로 유명한 예술 컬렉터이자 자선사업가 마야 호프만^{Maja Hoffmann}. 그는 시내 남동부의 버려진 철도 시설 부지에 아트 센터 뤼마 아를^{LUMA Arles}을 세우며 아를을 빌바오 같은 새로운 예술의 도시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철도 수리 창고 등 대형 창고 건물을 전시 공간, 워크숍 공간, 세미나실, 연구실 등으로 바꾸고 실험적 문화 기지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아를의 재탄생을 알릴 파격적이고 상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기지의 얼굴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릴 메인 타워는 특별해야 했다. 그래서 호프만은 게리와 손잡았다.

논란과 화제의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

프랭크 게리와 손잡았다는 것은 논란의 중심에 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게리의 작품은 공개되면 언제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과 압도적이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호불호가 갈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가 건축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직선만 있던 건축에 곡선을 강조한 디자인을 반영하고, 콘크리트 대신 티타늄을 새로



© Annie Leibovitz



© Marc Dornage

1. 대화 중인 프랭크 게리(왼쪽)와 마야 호프만
2. 뤼마 아를 내부 곳곳에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속 작품은 설치미술가 리암 길릭의 'Orientation Platforms' 중 하나
3. 알루미늄 패널로 바위산의 거친 느낌을 형상화한 뤼마 타워 외관. 인근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알루미늄은 특수 코팅했다.
4. 뤼마 타워가 버티고 선 뤼마 아를 전경. 약 11만㎡에 달하는 부지에 레노베이션한 대형 창고형 건물 6개 동, 호수를 포함한 공원 등이 들어서 있다.



© Adrian Deweerdt



© Iwan Baan



© Adrian Deweerdt

1



2

© Ivan Baan

운 건축자재로 도입하며 고정관념을 부숴왔다. 하지만 그가 화제성만을 좇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미 골판지를 60겹으로 쌓아 구부러 의자를 만들고, 베니어판·체인·금속판 등의 폐자재를 활용해 헌 집을 살려 ‘게리 하우스’를 지으며 익숙한 것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왔다. 또한 기존 상식과 질서에 반하며 새로운 것을 찾는 실험 정신으로 건축의 가능성을 넓혀왔다.

그래서 그가 설계한 건물은 보기만 해도 그의 손길이 닿은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장소에 자신의 스타일을 맞추는 건축가가 있는 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지은 자 하 하디드처럼 어디에 있건 자신의 디자인을 고수하는 건축가도 있다. 프랭크 게리는 후자에 속한다. 그가 지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서울의 루이 비통 매장 등을 떠올려보자.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외관과 반짝이는 소재들. 그는 그곳이 어디든 자신의 작품으로 도시의 풍경을 단박에 바꾼다.

아를의 명소를 재해석한 21세기 바위산

그렇다고 그가 맥락 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풀어놓는 것은 아니다. 그는 건물이 지어질 곳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스타일로 풀어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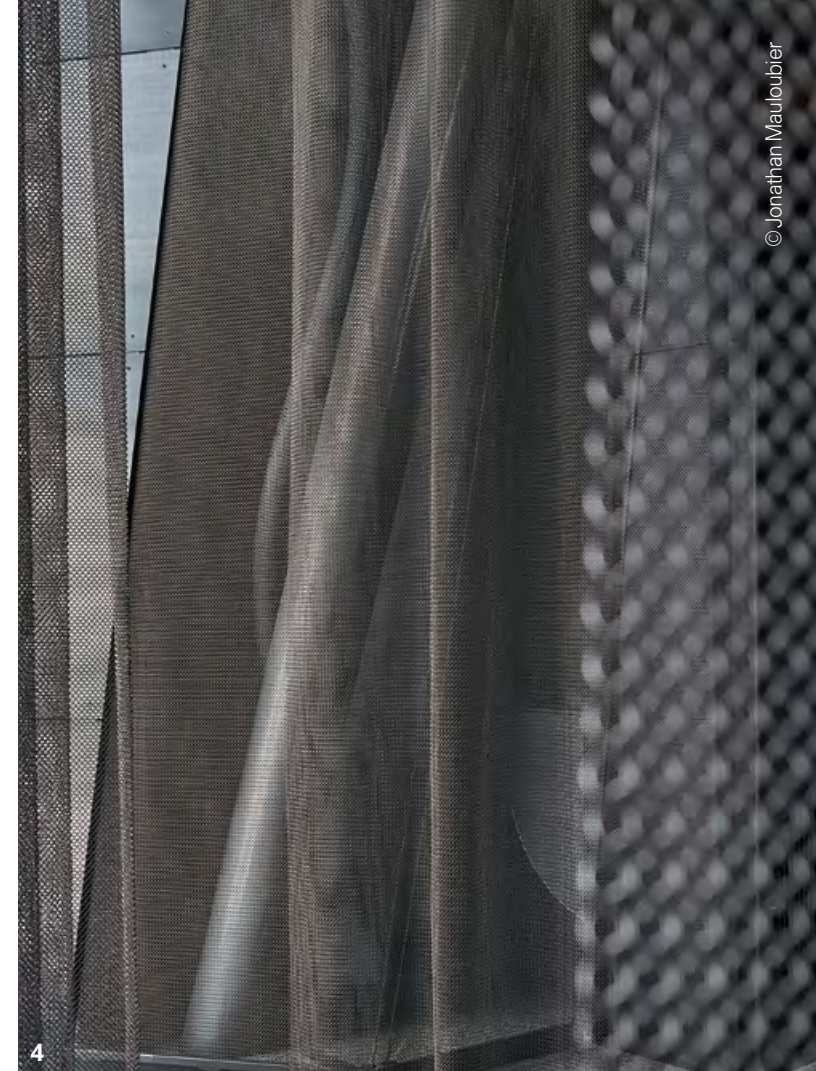
프랭크 게리는 이번에도 뤼마 타워를 구상하기 전 먼저 아를을 면밀히 살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은 무엇일까. 그는 남아 있는 세 가지 유산을 보물로 여기고 설계에 반영했다. 바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느껴지

1. 뤼마 타워에는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는 스웨덴 예술가 카르스텐 휠레르의 아이소메트릭 슬라이드가 영구 설치되어 있다.
2. 곡선미가 아름다운 뤼마 타워 내부.
3. 원형경기장을 형상화한 유리 스타디움이 타워 하단을 둘러싸고 있다.
4. 스틸 소재의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아름다운 레이어를 완성한 뤼마 타워 내부.



© Ivan Baan

3



© Jonathan Mauloubier

4

는 거친 듯 유려한 붓질과 아를 지역의 바위산, 아를의 또 다른 명소인 로마 시대의 원형경기장이다. 일견 어울리지 않고,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조합을 어떻게 결합했을까. 그는 특유의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바위산의 거친 산맥을 형상화하고, 알루미늄 패널 1만1,000여 개를 불규칙하게 붙여 별처럼 빛나는 뤼마 타워를 완성했다. 또 로마 시대 원형경기장의 형태를 본떠 타워 하단을 원형의 유리 아트리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짓는 데 무려 7년이 걸렸다. 완성된 타워는 호수와 여러 채의 건물이 있는 넓은 뤼마 아를의 입구를 당당히 지킨다.

자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관이지만, 내부는 좀 다르다. 호프만은 뤼마 아를을 만들 때 지역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면을 최대한 살리려 했다. 그래서 타워 내부에 소금, 해초, 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 만든 내장재를 사용했다. 로비를 장식한 4,000여 장의 소금 패널은 타워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2014년부터 무려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여름 56m의 뤼마 타워가 완공되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평론가는 “압도적인 스테인리스스틸 토네이도 같다”며 찬사를 보냈고, 일부 평론가는 “구겨진 알루미늄 캔 같다”고 혹평했다. 프랭크 게리의 작품다운 결과다.

논란을 뒤로하고 타워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빛을 발산하며 도시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낮에는 은빛, 밤에는 금빛을 띤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암석 바위가 서 있는 듯하다. 이렇게 야트막하고 오래된 건물만 있던 도시의 조용한 풍경에 극적인 방점이 찍혔다. 단순히 풍경만 바뀐 것이 아니다. 타워 완공과 함께 출판, 아틀리에, 페스티벌 등이 뤼마 아를로 자리를 옮기며 자연스레 도심 일대의 문화 예술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뤼마 타워는 아를의, 유럽의 또 다른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



삶의 새로운 기준, ESG 라이프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무거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무료 비닐 포장을 사양한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유별난 환경 운동가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해나간다.
우리의 일반적 행동 양식이 된 'ESG 라이프'에 대하여.

Writer: 한소영 Photo: 셔터스톡 Reference: <라이프 트렌드 2022>(김용섭, 부키)

지난해 이맘때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내렸다. 나무에 핀 봄꽃은 쏟아지는 비에 서둘러 떨어져버렸고, 꺾은 날씨에 '집콕'을 해야 하는 답답한 시기가 이어졌다. 비는 갑자기 내렸다가 멈추길 반복했다.

올해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2021년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는 이상기후가 계절별로 두루 나타났다고 한다.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73년 이후 겨울을 제외한 전 계절에 평균기온이 매우 높았고, 이른 더위로 7월 최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높은 기온으로 서울 벚꽃 개화일이 1922년 관측 이래 가장 빨랐고, 5월은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내려 강수일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우박과 뇌전도 잦았다. 신동현 수도권기상청장은 "2021년은 기후변화로 서유럽의 폭우, 북미의 폭설 등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해이며,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은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세계적 팬데믹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울하기만 한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 나쁜 소식 속에서 의기소침해지는 대신 그래도 꾸물꾸물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무거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음료를 담아 마시고, 거품이 잘 일지 않아 다소 뻑뻑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 이른바 'ESG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원래는 기업 활동에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을 담은 말이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마찬가지여서 ESG 라이프스타일은 개인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고, 기후변화 위기는 우리 모두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ESG 라이프스타일은 기업의 ESG 경영과 조금 달라서 아무래도 환경(E)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1. 도시의 배관을 활용한 공유 정원
2. '봉사 활동'이라기보다 '일상'에 가까운, 조깅하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행위인 플로깅

플렉스에서 이제 플로깅

불과 2~3년 전쯤 한국의 젊은 층에서 '플렉스한다'란 말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플렉스(Flex)란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부를 뽐내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로,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거나 과시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재미로 쓰면 그만이라 해도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자란 세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듣고 왠지 마음이 씁쓸해지는 걸 느끼기도 했을 터. 그런데 이 알다가도 모를 MZ



세대가 주목하는 단어가 어느새 ‘플렉스’에서 ‘플로깅’으로 바뀐 것이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라는 의미가 있는 스웨덴어의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gging)을 합친 말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현재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고 한다. 플로깅은 어쩌다 쓰레기를 한두 개 줍는 것이 아니다.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다. 조깅하러 나갈 때 작은 에코백을 챙겨 조깅하는 동안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주워오는 것이다. 쾌적한 조깅을 계속 즐기기 위해선 내가 먼저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는 책임감의 발현이다. 이는 21세기 소비자의 새로운 ‘합리적’ 행동 방식이다. ESG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이들은 불편한 일을 자발적으로, 마치 즐거운 일인 양 해나간다. 여행할 때도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각종 용기를 챙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친환경적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비자의 새로운 ‘합리적’ 소비가 기업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을 안 작은 공동체

그린피스 같은 환경 단체가 플로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지극히 사적인 시간에 플로깅을 시작해 작은 모임이 형성되는 식으로 나아간다. 개와 산책하다가 종종 마주치는 동네 사람 몇몇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볍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한날한시에 모여 동네에 있는 작은 동산의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기도 한다. 이제는 지자체와 기업들도 이러한 플로깅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자가 이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나?’ 하는 억울한 마음에 함몰되지 않는다. 환경을 위해서는 너나없이 누가 이득인지를 따지지 말고 우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개인의 공간인 ‘정원’과 서로 나누는 ‘공유’가 만난 ‘공유 정원’도 비슷한 개념이다. 세계 곳곳에서는 자신의 정원을 꾸미는 것을 넘어 도시환경을 위해 공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작물을 수확해 나누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ESG 라이프스타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혼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쩌다 마주쳐 알게 된 얼굴 외에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웃에 대해, 그 이웃이 나와 같이 지구환경을 위한 작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서로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모인 이들이 지구를 위한 활동을 하나둘씩 확장해나간다.

이제는 보통의 일이 된 것들

코로나19 이후, 예전에 당연하던 많은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돼버렸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전 세계인이 똑같이 겪는 문제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서로에게 미룰 수도 없다. 유난스러워 보이던 환경 운동가들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아닐까. 기후 위기다, 아니다 하며 따지는 것을 떠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길 바란다면 플라스틱 빨대를 덜 쓰는 게 무어 그리 대수랴. 대단한 과학적 지식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에른스트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영속성은 아버지 시대에 사치품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약탈적인 태도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삶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 팬데믹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방식에 차분히 적응해야 한다. 그 방식이 플로깅이 될 순 있어도 플렉스가 될 순 없지 않을까? 자진해서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이러한 행동 양식이 결국 공동체에 가장 큰 이득을 주고, 그리하여 공동체에 속한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 되는 ESG 라이프. 삶에 영속성을 불어넣는 이 선순환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얘기다. 플렉스가 아닌 플로깅이, ESG 라이프가 보통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

plus ESG 라이프에 도움을 주는 책



<우리가 날씨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 지음 / 민음사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멀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바로 눈앞에, 마치 아침 밥상 위에 가져다놓은 듯 각성을 촉구한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 써나간 매력적인 에세이를 통해 육식이 지닌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끌어낸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의 작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날씨가>는 작가의 두 번째 논픽션이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본 쉬나드 지음 / 라이팅하우스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로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가 쓴 경영철학서다. 이 책이 2005년 미국에서 출간됐을 당시 경영서로는 이례적으로 아마존 환경 분야 1위를 기록했고,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됐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 괴짜 기업가의 책을 연구 자료로 썼다고 한다.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지금 시대의 기업에도 너무나 유효한, 단연 ESG 분야 베스트셀러다.



<제로 웨이스트 가드닝>
벤 래스킨 지음 / 브.레드
텃밭과 베란다에 농사를 짓는 ‘도시 농부’가 되는 방법과 그 수확물을 남김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를 알록달록한 일러스트와 함께 담았다. 이 구체적 방법론의 목표는 제목 그대로 ‘쓰레기 없는’ 도시 가드닝.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수반된다. 저자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소일 어소시에이션(Soil Association)’에서 영농인 양성 과정을 창설해 유기농법 이론과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HD, UK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첸나이 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6th Floor, EA Chambers, No. 49, 50L, Whites Road, Royapettah, Chennai 600 014, India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WB파이낸스 TEL +855 23 96 3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5-1908,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칼라룸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폴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사무소

Senior Plus

경험은 삶에서 가장 큰 스승이며, 해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유형별로 알아보는 은퇴 플랜 다시, Bravo My Life!

100세 시대, 은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말이다. 저마다 꿈꾸고 있는 인생 후반기의 삶은 다를 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 걸까. 유형별로 정리해보았다.

Writer: 강은진 Reference: 한국고용정보원, <인생 2막, 새로운 도전>



가능성이 보이는데? ‘틈새도전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 직장 생활 경력과 경험을 자산으로 재취업부터 창업까지 적극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유형이다. 협동조합 운영자부터 스마트 파머, 공정 무역 전문가, 1인 출판 기획자, 투자 심사역, 기술 경영 컨설턴트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넓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성공 사례도 많다.

이젠 즐기면서 살래! ‘취미올인형’

악기를 배워볼까, 운동을 시작해볼까?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좋아하는 스타의 공연에도 가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늘 훗날을 기약하며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온 삶이었다. 차라리 한창나이에 나만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고 후회가 밀려온다. 그렇기에 이젠 충분히 즐길 자격을 갖췄노라 생각하며 취미 생활에 올인하는 사람들이다. 은퇴를 앞둔 그들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당당히 외친다.



배움엔 때가 없잖아? ‘열혈학구형’

60세 나이에 수능을 보고 한의대에 진학하고,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교대에 입학하는 등 종종 뉴스를 통해 은퇴 후 대학에 진학하는 도전 사례를 접하게 된다. 비단 직업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다시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위를 따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등 뒤늦게 학구열을 불태우며 넘쳐나는 은퇴 후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한다. 배움의 길엔 나이의 벽도 없기에 은퇴자들은 큰 자신감을 덤으로 얻기도.



한발 앞서면 대박이야! ‘미래준비형’

변화에 민감한 트렌드세터들의 은퇴 준비는 뭔가 다르다. 정부 육성 신직업을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직종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신직업이란 아직 국내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지만, 미래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직업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전문 인력 육성 및 민간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분야를 살펴보면 된다. 은퇴자도 경쟁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



감동적 삶이 좋아! ‘사회공헌형’

은퇴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고, 가야 할 길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 하나다. 그래서일까. 은퇴 후 사회에 기여하고, 마을과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며 남은 생을 의미 있는 감동으로 채우고자 하는 유형이다. 순수 봉사부터 자신의 경험 등을 살려 적은 수입에도 소일거리로 사회봉사 단체 등에 헌신하길 꺼리지 않는다.



자연을 두르고, 쉼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인지, 이를 안락하게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숙소 덕분인지 선후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어찌랴.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더욱 완벽한 휴가를 선사하는 숙소 네 곳.

Writer: 한소영 Photo: 각 숙소 제공

현대인의 피정^{憩靜}을 위한 숙소 유리트리트

강원도 홍천군, 자갈길과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골짜기 끝에 자리한 ‘유리트리트’. 무늬도 없이 미색의 콘크리트와 유리로 이뤄진 외관을 지닌 이곳을 맞닥뜨린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는 거대한 구조물의 형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기암절벽에서 영감을 받아 형상화한 이 건축물에 쏟아진 찬사는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다. 2016년 한국건축가협회상 베스트 7 수상, 같은 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일반 주거 부문 대상, 미국 건축가 어워즈 수상 등 다수의 시상식에서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유리트리트는 협곡의 형태를 닮은 U와 피정^{憩靜}이라는 의미의 리트리트 Retreat를 합성해 지은 이름이다. 여기에 당신 You이라는 의미를 더해 ‘당신의 피정을 위한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완성했다. 피정이란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고 수련하는 일을 뜻한다. 평소에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상어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우리 일상엔 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발달한 문명 속에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듯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고요한 공간에서 나를 수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리트리트는 한국에서 피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유리트리트가 자리한 둔덕 아래로는 냇물이 흐르고, 골짜기 곳곳엔 기암절벽이 고요한 숲을 이룬다. 전 객실에서는 천연 암반수 스파를 즐길 수 있고, 밸리 객실에서는 천연 암반수 수영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백이 많은 공간은 여행객이 저마다 다른 모습을 채워가길 바라는 듯 널찍한 공간을 내어준다. 수목이 우거진 자연 안에 자리한 담백한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1468-55

문의 033-433-2786

홈페이지 uretreat.co.kr



북한산 자락에 안긴 도심 속 휴양 호텔 파라스파라 서울

지난해 싱그러운 늦여름, 북한산국립공원 자락에 문을 연 파라스파라 서울^{Paraspara Seoul}은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에코 럭셔리 리조트’를 표방한다. 리조트 이름인 ‘파라스파라’는 ‘서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숙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산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이곳은 올봄 미세먼지를 피해 몸과 마음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어줄 것.

총 14개 동 334개의 객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던 우드’ 스타일을 선보이며, 북한산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일명 ‘히노키탕’으로 불리는 온수 욕조를 갖춘 객실이 있어 북한산을 바라보며 황홀한 온천욕을 즐길 수도 있다. 베이커리, 테라스 카페, 레스토랑, 실내·외 수영장장과 키즈 수영장,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피겨 뮤지엄, 산악박물관 등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늘과 맞닿은 스카이가든에서는 북한산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자연 채광이 훌륭해 쾌적한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건강한 휴가를 위해 트레이닝 시간을 계획해보거나 리조트 주변 경관을 즐기며 북한산 둘레길 코스 트레킹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주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89
문의 02-3408-5000
홈페이지 www.paraspara.co.kr



‘비움’을 통한 고요한 쉼 무이림

서해 끝자락, 바다를 향해 돌출된 절벽 위에 우리의 옛 풍류 문화를 이어나가는 ‘무이림’이 자리한다. ‘비움’을 통한 동양적 고요함을 추구하는 무이림은 복잡복잡한 일상을 떠나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한 최상의 숙소다. 각각의 객실은 독립성을 위해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부드러운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모든 공간은 통창으로 이루어져 자연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군더더기 없이 비워낸 객실 내부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기운이 가득하다. 전통 툇마루를 재해석한 공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전통 다도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옛 풍류를 즐기며 온전한 쉼을 누리보자. ●



© JongOh Kim



© JongOh Kim



원시 숲에서 누리는 완벽한 휴식 레스트리 리솜

충북 제천의 포레스트 리솜 리조트 내에 자리한 또 하나의 리조트 ‘레스트리 리솜’.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로 조성된 이 호텔식 리조트의 객실은 넓은 창 너머로 숲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진다. 덕분에 대자연과 접하며 휴식을 즐기는 ‘숲캉스’를 위한 최적의 숙소가 되어준다. 해발 550m의 루프톱에 자리한 4개의 프라이빗 저쿠지 ‘브이탑 스파’는 산능선을 굽어보며 스파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책과 음악,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 내 카페 ‘마뭉 라운지’는 일상에서는 바빠서 읽지 못한 책 한 권 들고 조용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이 속속 찾아든다. 레스토랑 ‘몬도 키친’에서 맛보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 역시 자연 속에서의 건강한 휴가를 만족시킨다. 원시 자연 속 도심형 문화 감성을 지닌 리조트에서 건강하고 감성적인 휴가를 즐겨보자.

주소 충북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문의 043-649-6000
홈페이지 www.resom.co.kr/restree



© JongOh Kim

걷는 맛, 보는 맛으로 가득한 트레킹 명소들

몸을 무리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는 방법, 바로 트레킹이 아닐까.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봄 풍경을 오래도록 감상해보자.

Writer: 한소영 Photo: 이효태

벼랑을 따라 낸 단정한 텍 길 단양강 잔도

잔도^{棧道}는 험한 벼랑 같은 곳에 선반을 이어 달아놓은 듯 만든 길을 의미한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든 건너다녀야 하는 길목에 험준한 산악 지대가 있을 경우 벽에 선반을 달 때와 비슷한 원리로 절벽을 따라 나무판자로 길을 푹푹딱딱 이어 만들어 아슬아슬 건너다녔다.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에 자리한 단양강 잔도는 벼랑을 따라 남한강 수면 위에 설치한 텍 길이다. 폭은 2m 정도로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아 오손도손들이 걷기 좋다. 기분 내어 신은 튼튼한 아옷도 어 운동화가 무색할 정도로 평탄한 트레킹 길이다. 걷는 재미가 있는 울퉁불퉁 정겨운 흙길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텍 길 아래로 잔잔히 흐르는 아름다운 남한강과 강을 에워싼 계절 품은 산맥의 풍경이다. 이 절경을 감상하며 누구든 함께 어렵지 않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단양강 잔도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일몰 무렵이면 강변 길을 따라 조명이 켜지면서 무수한 작은 빛이 이어진다. 느지막이 찾아도 아름다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위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 18-15

총길이 1.2km

함께 들를 만한 곳 인근에 이끼터널, 수양개천사유물전시관, 수양개빛터널이 자리한다. 특히 단양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단양강 잔도에서도 보이는 곳으로, 20여 분 거리에 있어 함께 들르기 좋다.



트레킹 팁!

- 간식을 챙기는 것이 좋다. 꼭 먹지 않더라도 챙겨 온 간식 자체가 ‘허기지면 어떡하지?’, ‘식료품 살 곳이 어디 있지?’와 같은 잔걱정을 덜어주고 트레킹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은 언제나 좋다. 그날 날씨가 어떨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일찍 출발한다면 더 여유로운 트레킹을 즐기거나 더 긴 거리에 도전할 수 있다.
- 제때에 세끼 식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트레킹을 끝내고 너무 과한 식사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 트레킹할 때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되, 휴식을 취할 때는 등산화를 벗고 발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설 때마다 발을 잘 관찰하고, 혹시 물집이 생기거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지 잘 살핀다.
- 트레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명심하는 말이 있다. “길 위에서는 발자국 외에 무엇도 남겨서는 안 된다.” 모두가 건강한 트레킹을 위해 쓰레기를 담아올 수 있는 가벼운 주머니를 챙기자.



영주호 주변 12개 명소 둘러보기 영주호 힐링 코스

영주호 힐링 코스는 영주호를 중심으로 트레킹하며 12개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말한다. 코스는 영주다목적 댐부터 영주댐물문화관, 동막마루, 용천루 출렁다리, 영주호오토캠핑장을 지나 진월사전망대에 이른다.

영주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용천루 출렁다리 공사, 평은역 이전 사업 등이 이뤄졌고, 그 결과 영주다목적댐을 시작으로 하는 완만한 트레킹 길이 만들어졌다. 특히 9번 명소인 용천루 출렁다리는 영주호의 풍경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곳. 멀리서는 한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막상 건너면 매서운 강바람에 출렁다리의 묘미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댐의 원리와 상수도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영주댐물문화관 등 아이들과 함께 트레킹하며 들를 수 있는 곳도 있다. 단란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영주호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 가족 단위의 1박 2일 트레킹 여행지로 손색없다.

위치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897-2 영주댐물문화관

총길이 5km

함께 들를 만한 곳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에는 용마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용천루 출렁다리를 기점으로 두 공원 모두 둘러볼 수 있다.

퍼플교가 있는 환상의 섬 반월·박지도 둘레길

온 섬을 보랏빛으로 칠한 신안의 반월도와 박지도는 ‘퍼플 섬’이라 불린다. 2015년 시작한 섬 재생 사업을 통해 섬에서 자라는 보라색 꽃이 피는 도라지 군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라색 콘셉트로 섬을 재단장한 것이다. 이곳은 용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의 지붕부터 섬과 섬을 잇는 다리, 마을 식당의 맛있는 밥 빛깔까지 전부 보라색이다. 이 동화같은 풍경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도록 반월도와 박지도는 섬 둘레에 아름다운 바다를 따라 해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반월도 둘레길은 4km 길이로 약 2시간, 박지도 둘레길은 2.1km 길이로 90여 분이 소요되어 하루 동안 섬을 둘러보며 트레킹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섬을 여행하는 더 유쾌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보라색 의복을 차려입는 것. 상의와 하의, 신발, 모자 그리고 우산 다섯 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보라색으로 착용하면 섬에 들어가기 위한 소정의 입장료가 무료다. ●



위치 전남 신안군 안좌면

총길이 반월도 둘레길 4km, 박지도 둘레길 2.1km

함께 들를 만한 곳 퍼플교를 이용하면 신안 안좌도와 박지도, 반월도 3개의 섬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다. 이 다리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도 유명하다.

경주신라 컨트리클럽 천년 고도에서 즐기는 봄 라운드

신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자리에 골퍼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골프 코스를 조성했으니, 그곳이 바로 경주신라 컨트리클럽이다.
봄기운이 만연한 지금, 이곳에 가면 골퍼가 선사하는 행복을 오롯이 누릴 수 있다.

Writer: 황창연(골프 칼럼니스트)



페어웨이가 넓고 평탄하며 광활한 남성적인 천마코스



엽, 다운이 적당히 있고 아기가 지기하며 부드러운 여성적인 화랑코스

역사가 녹아 있는 자연스러움

경상북도 경주에는 신라 때 수도 서라벌을 방어하던 명활성 옛터에 인공 호수 보문호를 중심으로 보문관광단지가 조성돼 있다. 호수를 따라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고, 주변에는 호텔과 리조트 등 각종 숙박 시설뿐 아니라 워터파크, 테마파크, 컨벤션 센터,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경주신라 컨트리클럽은 이 보문관광단지 내에 조성한 골프장이다. 그 덕분에 수려한 나무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잘 정돈된 분위기가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을 안기는 곳이다. 또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골프장을 빛나게 하는 건 오랜 역사 속에 녹아든 자연스러움이다. 1979년에 개장한 이래 무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서일까, 모든 것이 자연 친화적이다. 오래됐다고 모든 것이 낡았을 것이란 생각은 금물이다. 여러 사람이 찾는 만큼 잘 정리되고 깨끗해야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 따라서 골퍼들이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잔디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오래된 시설도 수시로 보수한다. 최근 클럽하우스도 증축하며 현대식으로 재단장했다.

넉넉한 홀 간격이 매력적

경주신라 컨트리클럽의 골프 코스는 총 36홀로 이뤄져 있다. 36개 홀이 약 215만㎡(65만 평)의 넓고 평평한 대지에 펼쳐져 다양하게 공략할 수 있다. 특히 넓은 대지를 잘 활용해 설계한 덕분에 홀 간격이 넉넉하고 독립성이 강해 다른 팀을 의식하지 않고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볼이 떨어지는 중간 표적(IP)이 정확히 보여 티샷 전에 홀을 어떻게 공략할지 전략을 짜기에도 좋다.

여기에 더해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은 코스를 더욱 흥미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관광단지에 조성한 코스인 만큼 난이도는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완만한 평지에 걷기 좋게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발휘해 홀 공략에 중점을 두기보다 주변을 둘러보고 산책하듯 플레이하며 골프 본연의 즐거움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오래된 수목과 주

변 경관은 코스와 전혀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뤄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동반자와 얘기하며 즐기기에 더 적합한 곳이다. 더욱이 천마와 화랑이라는 2개의 18홀 코스를 보유하고 있어 골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

코스별 공략법

먼저 천마 코스(18홀)는 남성적 특징을 가졌다. 1979년에 개장해 40여 년을 버텨온 만큼 자연에 동화된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하고 힘이 넘쳐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보기 좋은 이 코스를 공략할 땐 장타가 필수다. 워낙 넓고 길게 만들어 티샷에 따라 공략의 난이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곳곳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벙커가 공략의 요지에서 공을 여지없이 집어삼킨다. 하지만 초급자라도 방향 선택을 잘해 장애물만 피하면 무난히 홀 공략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늘에서본경주신라cc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진입로 공원 전경

반면 화랑 코스(18홀)는 여성적 면이 강하다. 강하고 공격적으로 공략하기보다 좀 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마 코스보다 아기자기하고 곡선이 돋보여 부드러운 느낌이다. 페어웨이 역시 언듈레이션을 적당히 줘 아름다운 물결이 연상된다. 따라서 무조건 멀리 보내는 공략보다 정확한 방향과 샷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플레이가 요구된다. 특히 그린에서 플레이할 때는 아주 정교한 샷이 필요하다. 빠른 그린 스피드가 3퍼트 Three-putt를 유발하고,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굴곡이 공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기 일쑤다.

앞서 말했듯이 이 2개의 코스에서는 정복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라운드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코스 주변은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수목이 즐비해 사계절 색다른 풍광을 연출하고, 플레이가 끝나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에 빠질 수 있다. 이곳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느끼며 감상하는, 즐기 위한 골프장이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다.

잊지 못할 벚꽃 라운드

경주신라 컨트리클럽에 간다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연못의 벚꽃이 아름다운 화랑 13홀은 우측은 O.B지역이며 좌측은 병행워터해저드다.

봄, 바로 지금이 적기다. 쉽게 눈에 담기 힘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덩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보문관광단지 내에 자리한 골프장이다. 다시 말해 봄의 여왕 벚꽃이 필 때면 이곳은 그야말로 벚꽃 세상이다. 벚꽃이 온 도시를 감싸 어디를 가든 화려한 꽃비가 내린다.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다. 골프장에 들어서는 진입로부터 환상적인 벚꽃길이 펼쳐진다. 골프 코스는 말할 것도 없다. 수많은 벚꽃이 코스 곳곳을 하얗게 수놓는다. 골프 라운드보다 사진 찍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다. 페어웨이 어느 곳에 서도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담을 수 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벚꽃 개화기에 맞춰 티타임을 잡는다면 평생 잊지 못할 골프 라운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Information

코스 총 36홀, 천마 코스(파 72, 6,524m), 화랑 코스(파 72, 6,451m)
요금 그린 피 주중16만원, 주말 19만원(비회원 기준), 카트 피 8만원, 캐디피 13만원
주소 경북 경주시 보문로 319(신평동)
홈페이지 sillacc.co.kr
문의 054-740-7114



경주신라 컨트리클럽 근처 봄꽃 명소

산과 들 그리고 천년 고도의 유적지 사이로
연둣빛 움이 트고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
3월의 경주는 찬란하다.
봄꽃 라운드를 마치고도 들뜬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꽃강스를 떠나보자.
경주신라 컨트리클럽 근처 대표 봄꽃 명소로.

Photo. 한국관광공사 경주문화관광



가장 유명한 목련나무를 만나는
대릉원

봄이 되면 미친 존재감을 뽐내는 ‘스타’ 목련나무가 있다. 거대한 왕릉 2개가 유려한 곡선을 이루며 만나는 자리에 심어진 아름다리나무 한 그루, 바로 대릉원 목련이다. 단아한 기품을 자랑하는 새하얀 목련은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자태를 뽐낸다. 전국구 포토 존답다.

#경주 #목련꽃 #대릉원 #포토존 #왕릉 #야경맛집

운영 시간 매일 09:00~22:00, 연중무휴(어른/개인 3,000원, 어린이/개인 1,000원)

문의 054-750-8650 | **주소** 경북 경주시 황남동



흐드러진 수양벚꽃의 정취
보문정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 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 11위에 오른 보문정은 사진작가들의 단골 출사지다. 특히 호수와 정자, 연분홍 수양벚꽃이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그만이다. 보문관광단지 역시 양쪽으로 벚꽃 터널이 형성돼 있어 봄 산책 코스로 으뜸이다.

#보문관광단지 #수양벚꽃 #호수 #정자 #세계적명소

운영 시간 24시간, 연중무휴

문의 054-745-7601 | **주소** 경북 경주시 신평동

샛노란 유채꽃밭을 거닐며 계림

첨성대를 뒤로하고 김씨 왕족의 시조(始祖) 김알지(金閼智) 탄생 설화의 배경이 되는 숲, 계림으로 가는 길은 유채꽃 명소다. 너른 들판에 노란 유채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다. 파란 하늘과 연둣빛 숲 그리고 노란 대지까지 지천이 봄이다.

#유채꽃 #꽃길 #숲 #반월성 #설화 #첨성대

주소 경북 경주시 교동



질푸른 청보리의 계절
분황사

경주의 겹벚꽃 소식이 들려온다면 청보리의 계절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4만m²에 이르는 분황사 일대는 전북 고창과 제주에 이은 청보리밭 명소! 드넓게 펼쳐진 짙은 초록의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신라시대 #초록물결 #황룡사지터 #붉은노을 #일몰명소

문의 054-742-9922 | **주소**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



화려한 튜립의 향연
첨성대

튤립이 필 시기가 되면 첨성대로 가자. 바로 옆에 동부사적지대 야생화 정원에 빨갛고 노란 색을 한껏 피운 튤립이 가득하다. 이 밖에도 유채꽃, 양귀비꽃 등 16만m² 부지에 그야말로 꽃대궐이 지어진다.

#야생화정원 #꽃대궐 #튤립 #첨성대 #삼국시대

주소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에이미 조의 원 포인트 레슨

모든 골퍼의 고민! 우드, 어떻게 해야 잘 칠까?

많은 골퍼가 가장 어려운 클럽으로 우드를 꼽는다. 긴 길이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드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방법만 익히면 만족할 만한 샷을 칠 수 있다.

Writer: 에이미 조

우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클럽의 길이다. 게다가 티샷이 아닌 땅에 있는 볼을 쳐야 하기 때문에 볼의 중심을 맞추기 어렵고, 스윙 템포나 컨트롤이 쉽지 않다. 이번에 소개하는 방법만 차근차근 익힌다면 우드도 잘 칠 수 있을 것이다.

우드의 템포, 아이언보다 더 느리게

우드는 평균적으로 드라이버 클럽의 길이와 약 2인치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드라이버 다음으로 가장 긴 클럽이다. 길이가 긴 클럽의 경우 템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드의

스윙 템포가 아이언의 스윙 템포처럼 빠르다면 슬라이스나 미스 샷이 나기 일쑤다.

템포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드로 스윙할 때는 백스윙 톱에서 살짝 멈춰보는 것이다. 이 멈춤은 클럽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운스윙 때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몸이 리드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만들어준다. 아이언 스윙을 할 때의 템포가 1-2 혹은 1-2-3 으로 카운트한다면 3번 우드는 이 아이언 템포보다 더 과장되게 느린 느낌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몸 회전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다운스윙 시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높아져 똑바로 멀리 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드 스윙을 시작할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로 카운트해 백스윙 톱에서 '꽃'으로 끝낸다.



다운스윙 시 '피었습니다'로 카운트해준다.

우드 템포 연습 방법,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번 우드의 템포는 백스윙 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이용해 카운트해보자. 테이크 어웨이 시작 시 '무궁화꽃~'을 읊조려본다. 이때 백스윙 톱에서 '꽃'으로 끝내고, 다운스윙 시 '피었습니다'의 박자에 맞춰 카운트해준다. 다만 '다'를 외치고 움직이면 실제 게임할 때처럼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피니시를 예쁘게 잡는 것도 잊지 말자. 처음 연습 시 템포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야 몸 회전이 크고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느린 템포를 꾸준히 가져가보자.

우드 스윙, 몸을 천천히 회전하는 느낌으로!

우드를 스윙하면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빨라진다. 그 이유는 클럽의 길이가 길어 스윙이 커지고 클럽의 무게 또한 무겁기 때문이다. 이때 몸도 함께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많은 골퍼가 여기서 실수를 저지른다.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올바르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선 몸의 회전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몸 전체를 천천히 회전하는 느낌이 나도록 움직여야 더 커진 회전 동작으로 스윙을 마무리할 수 있다.



우드 백스윙 측면.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올바르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선 몸 회전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에이미 조의 3번 우드 강의
에이미 조의 우드 사용 비법을
동영상을 통해 쉽게 배워보세요.

찍는 것보다 쓸어 치는 느낌으로 치는 우드

우드를 쓸어 치듯 스윙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완만해진 최저점 구간의 아크 때문이다. 완만해진 아크로 찍어 치는 느낌보다 쓸어 치는 느낌으로 스윙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은 공 앞 약 6인치 정도 위치에 티를 꽂거나 동전 혹은 낙엽을 두고 한번 쳐보는 것이다. 공을 친 후에도 앞에 놓아둔 것을 다시 클럽으로 쳐보며 감을 익히자. 3번 우드를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다. 느린 템포로 몸을 회전하면서 스윙을 하고 바닥을 쓸어 친다는 느낌으로 할 것.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연습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낙엽이라도 이용해 실천처럼 스윙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몸에 익으면 실전에서도 좋은 우드 샷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드를 쓸어 치는 느낌으로 하는 연습 방법이 좋다. 공 앞 약 6인치 정도 위치에 낙엽을 두고 공을 친 후에도 낙엽도 클럽으로 쳐 쓸어 치는 느낌을 익히도록 한다.



셀럽들이 사랑하는 술, 막걸리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유명 막걸리 이름 한두 개와 그 내력은 줄줄 꿰고, 맛도 즐기는 시절이다. 더 이상 ‘아재 술’이라 부르지 말지어다. 최고의 인싸주, 막걸리다.

Writer: 강은진 Reference. <요즘 뜨는 막걸리>(한경무크)



합해진 막걸리

부모님 세대부터 MZ세대까지, 요즘 막걸리는 전 세대를 아우르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어떤 막걸리는 양조장에서 직접 구매만 가능한데도 준비한 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걸리 열풍이 심상찮다. 올해 1월,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통해 막걸리가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집중 조명했을 정도. 아재 술이라 치부되던 막걸리가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인싸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소위 유희파의 막걸리 연구와 젊은 양조업자들의 고급화 전략, 거기에 한국 문화의 지위 향상에 따른 자긍심과 자신의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기질 특성

에 옛 문화를 현대에 맞게 해석해 누리는 뉴트로^{Newtro} 열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취향 찾는 향긋한 여정

합하다는 막걸리,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먼저 라벨을 보자. 재료와 생산지, 살균 여부와 알코올 도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후 첫 잔을 음미하며 감각을 익혀가는 거다. 막걸리는 시간에 따라 맛이 계속 변하는 술이다.

막 출하한 막걸리는 당이 덜 분해돼 맛이 달고 탄산과 신맛이 적다. 탄산과 신맛이 짝으면 맛이 진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막걸리는 뭔가 복잡한 와인이나 식산한 맥주에 비해 쉽고 재밌다. 우리 안의 ‘막걸리 DNA’ 덕분에 표문 막걸리인지, 해창18도인지, 태화루 생막걸리인지 몇 잔 맛보다 보면 금세 구분된다. 다양한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트렌디한 주막이나 입문자부터 덕후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전통주 بوت틀 숍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양조장을 직접 찾아가보는 것도 좋은 막걸리를 만나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만하다. 1,300여 곳에서 막걸리 2,000여 종을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

“막걸리 잘 아시나 봐요?” 국내 대표 양조장 이색 막걸리 BEST 5



해창주조장의 ‘해창18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인생막걸리발견 #해창롤스로이스18도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소개했을 정도로 유명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막걸리다. 한 병에 11만원으로 고가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

한강주조의 ‘나루생막걸리’

서울에서만 재배하는 경복궁쌀로 빚은 진짜 서울 막걸리다. 단일 품종의 햅쌀을 쓰고, 일반 막걸리보다 쌀 함량이 높아 부드러운 맛이 일품.

울산탁주의 ‘태화루’

주로 울산에서만 유통되는 태화루는 울산 시민의 자랑이다. 반세기 넘는 역사를 가진 막걸리로, 아주 맑고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호랑이배꼽양조장의 ‘호랑이배꼽’

여타 막걸리와 달리 생쌀을 으깨 만들어 깔끔하고 마시기 편한 완숙주다. 양조장이 호랑이 모양 한반도의 딱 배꼽 자리, 평택에 위치해 막걸리 이름도 호랑이배꼽이다.

구름아양조장의 ‘대관람차’

놀이공원을 세계관으로 정해 2030 세대 사이에서 막걸리 돌풍을 일으킨 구름아양조장. 작게 한 모금씩 음미하는 알코올 도수 12도의 신제품 ‘대관람차’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삶의 질 떨어뜨리는 일상의 고통을 잡아라 관절 건강 상식

관절염이 천식에 이어 두 번째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큰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차 싶을 때는 이미 늦은 관절 건강, 지금부터 부위별로 지켜보자.

Writer: 유나리 Photo: 셔터스톡 Reference: 〈백년 쓰는 관절 리모델링〉(김준배 지음, 비타북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화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질병이 바로 관절염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에는 감기보다 흔한 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0대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감기 환자보다 1.5배가량 많았고, 60대 이상에선 2배를 웃돌았다. 65세 이상 인구 중 약 80%가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의 병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국내 관절염 환자 10명 중 4명이 60세 미만의 젊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발생 연령층이 낮아지며 관절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절염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데다 수술해 인공관절을 끼운다 해도 사용 연한이 20년 남짓이라 여생을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의 행복 지킴이, 관절

무엇보다 관절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관절염의 정의도 비슷하다. WHO는 ‘관절염은 통증과 기능성 장애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며, 우울감·무력감·소외감 등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는 병’이라고 정의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몸이 아프면 활기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말하고 옷을 입고 앉거나 서는 등의 기본적인 동작은 모두 관절과 연관되어 있다. 관절염이 생기면 일상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류가 다양한 관절염

관절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원인도 제각기 다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나타난다.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판

과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서서히 닳아 없어져 생긴다. 뼈끼리 맞부딪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건강한 조직과 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것. 전신의 관절에 염증이 생겨 연골을 파괴하고 뼈까지 상하게 한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쥐기 힘들 정도로 손이 뻣뻣하고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면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본다.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자의 75% 이상이 여성이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23만8,984명 가운데 여성이 18만76명이었다. 유병률은 50~60대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는 통풍은 혈액 속 요산 수치가 점점 높아지며 쌓인 요산이 관절이나 관절 주위에 모여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관절염이 주된 증상 중 하나다. 초기에 요산 조절 치료를 받지 않으면 관절과 관절 주위에 통풍 결절이 생기는 만성결절 통풍성 관절염으로 악화된다. 주로 엄지발가락 뿌리·발목 관절·뒤꿈치·손목·손가락 등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40대 이상 남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일상에서 조금씩 망가지는 관절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관절이 손상된 채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하면 조직이 퇴화하고 회복력이 떨어진다. 관절염은 일상에서 차곡차곡 쌓인 관절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과 타고난 관절 건강 상태에 따라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다.

〈백년 쓰는 관절 리모델링〉을 쓴 정형외과 의사 김준배는 관절염의 원인 대부분이 ‘자세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사소한 행위’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도 병원에 오면 “별거 안 했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 ‘별거’가 관절에는 별거였던 것. 바꿔 생각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늦지 않게 관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관절염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별 나쁜 생활 습관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법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자. ●

관절염 주요 발생 부위별 관리법

목·허리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목(경추)과 허리(요추)에 통증이 온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나쁜 자세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박받아 디스크를 이룬 조직이 손상되면서 생긴다. 손상이 있는 채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으로까지 진행된다.

- 절대 피해야 할 자세**
-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기
 - 목을 앞으로 뺀 구부정한 자세(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독서 등)
 - 엉덩이를 뒤로 쏘고 앉은 자세(공부, 업무, 장시간 운전 시)
 - 허리 힘만으로 무거운 물건 들기

추천 운동 척추 건강엔 허리를 뒤로 젖히기

운동법	통증 동반 시
목 앞, 뒤, 옆 스트레칭 10회씩	○
허리를 뒤로 젖히며 스트레칭(엎드리거나 앉거나 서서) 10회씩	○
손을 이마, 머리 좌우, 뒤통수에 대고 머리를 밀며 버티기 10회씩	×
엎드려서 한 발 들기 좌우 10회씩, 누워서 엉덩이 들기 10회	×
벽에 몸 뒷면을 완전히 밀착한 자세로 1분 동안 서 있기	○

어깨



특정 동작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충돌증후군, 충돌증후군을 방지해 힘줄이 찢어지면 회전근개 파열, 파열된 회전근개 안에 염증이 생기면 석회건염이다. 이런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어깨를 보호하려다 어깨 사용 범위가 줄어든 채로 굳은 것이 오십견이다.

- 절대 피해야 할 자세**
- 창문 닦기, 머리 손질, 도배 등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든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 반복
 - 칼질 등 힘주어 누르는 동작
 - 테니스, 배드민턴 등 팔을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

추천 운동 첫째도 스트레칭, 둘째도 스트레칭!

운동법	통증 동반 시
팔을 최대한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올린 팔의 팔꿈치를 서서히 눌러 어깨 앞면 스트레칭 좌우 10회씩	○
팔로 문틀을 잡고 10초간 눌러 외회전 스트레칭 좌우 10회씩	×
수건을 양손에 길게 잡고 한쪽 팔을 엉덩이 뒤, 반대쪽 손을 머리 뒤로 보내 양쪽에서 당겨 내회전 스트레칭 좌우 10회씩	○
양손으로 벽 잡고 벽을 밀어내듯 어깨 스트레칭 10회	○
몸 뒷면을 벽에 밀착하고 양팔을 들어 수직으로 구부리기 10회	×

팔꿈치·손목·손



대부분 과다 사용이 원인이다.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긴 손목 건초염, 손가락 굴곡근에 문제가 생기는 방아쇠 손가락이 흔하다. 손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들거나 손을 사용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원인이다. 테니스 엘보 등으로 불리는 팔꿈치 통증 역시 과다 사용해 팔꿈치의 근육과 힘줄에 미세 손상이 가해져 염증이 생긴 것이 원인이다.

- 절대 피해야 할 자세**
- 이사, 청소 등 무거운 물건을 장시간 들거나 옮기는 동작
 - 가위질, 깎질 끼기 등 손목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동작
 - 바느질, 뜨개질, 농사일 등 손가락을 장시간 반복 사용하는 동작

무릎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릎에 하중이 쏠려 연골조직이 닳아 없어져 붓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

- 절대 피해야 할 자세**
- 쪼그려 앉기
 - 과체중
 -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기
 - 무릎을 다 펴지 않은 잘못된 걸음걸이
 - 무리한 계단 오르기
 - 테니스, 에어로빅, 108배 등 관절에 손상 가기 쉬운 운동

추천 운동 관건은 허벅지, 무릎 주변 근육 강화하기

운동법	통증 동반 시
의자에 앉아서 다리 쪽 펴기 좌우 100회씩	×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무릎 뒤 오목한 부분(오금)으로 고무공 누르기 좌우 15회씩 3세트	○
누워서 한 다리 들어 올리기 좌우 15회씩 3세트	○
옆으로 누워 다리 들어 올리기 좌우 15회씩 3세트	○
스쿼트 15회 3세트	×

추천 운동 가능한 한 안 쓰는 것이 우선

운동법	통증 동반 시
주먹을 지그시 쥐었다 펴는 손가락 굽히기 좌우 10회씩	○
다섯 손가락을 펴 편 후 손가락 사이 벌리기 좌우 10회씩	○
고무공 쥐기 좌우 10회씩	×
주먹 쥔 채 손목을 구부렸다 펴기 좌우 10회씩	○

발목·발



구조적으로 튼튼한 관절인 발목과 발 관절염의 주된 원인은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이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과체중. 발목 염증을 방지해 손상이 생기면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하고, 오래 걷고 뛰거나 서 있어 족저근막을 많이 써 염증이 생기면 족저근막염이 나타난다.

- 절대 피해야 할 자세**
- 발목 부상 후 인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
 - 발끝이 좁은 구두나 하이힐 장시간 착용
 -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걷기

추천 운동 주변 근육 강화에 집중

운동법	통증 동반 시
벽을 잡고 서서 다리를 한쪽씩 펴고 벽을 미는 종아리 스트레칭 좌우 10회씩	○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서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힘껏 밀어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 좌우 10회씩	×
야구공이나 빈병을 발 밑에 놓고 굴리며 근육 풀기 좌우 10분씩	○
의자에 앉아 발가락으로 구슬을 쥐어 옮기기 좌우 10회씩	×

TWO CHAÏRS 특화 서비스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국내외 각 분야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호텔 디너 초청, 골프 아카데미, 헬스케어, 웰빙 푸드 등 고품격 서비스를 우리은행 TCE*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우리WON꿀머니



호텔 디너 초청



골프 아카데미



헬스케어



웰빙 푸드



대상 A등급 직전 반기 금융수신 평잔 30억원 이상 및 기여손익 300만원 이상 고객(10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B등급 직전 반기 금융수신 평잔 10억원 이상 및 기여손익 150만원 이상 고객(5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C등급 직전 반기 금융수신 평잔 3~10억원 이상 및 기여손익 100만원 이상 고객(2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신규진입고객 최초 1회

문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주거래 영업점 TWO CHAIRS 창구 담당자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CE(TWO CHAIRS Exclusive)란?** 금융수신 10억원 이상인 우리은행의 Private Banking고객 등급을 말합니다.

선정 주기 고객별 연 1회(상·하반기 중 선정)
선정 안내 주거래 영업점 담당 PB를 통한 안내
유효 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

Wealt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과 부에 대한 혜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균형점에 따른 주식시장 분기점 전망

2022년 3월에 열리는 FOMC 회의는 올해는 물론, 이후 주식시장 변화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불가피한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Writer: 박석현(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애널리스트) Photo: 셔터스톡

2022년 1월 한 달간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5.3%와 -9.0%를 기록하며 두 지수 모두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부진한 월간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KOSPI 지수 역시 -10.6%로 2020년 3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급락세가 진정되며 1월 말부터 주가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전 상승 추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1월 주가 급락의 원인을 제공한 물가 고공 행진과 이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기적으로 올해 1/4분기는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이 될 전망이며, 이는 향후 1년간 주식시장 성과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배경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동했던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3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3월 15~16일, 현지 시간)에서 첫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는 배경은 첫째, 미국 경제성장이 정상화하며 본궤도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물가상승률이 정책 목표 2%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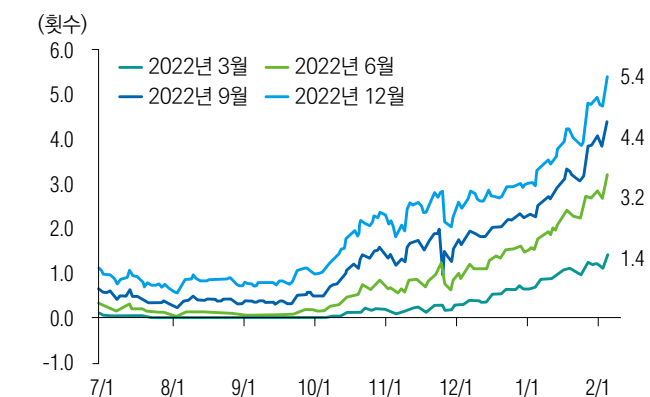
미국 경제성장이 정상화하고 노동시장 회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길게 지속할 수는 없으며,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2022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3% 중·후반의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실업률과 총 실업자수도 연말경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이라는 점은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개시를 지지하고도 남는다. 연준이 올해 3~4차례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1%를 넘지 않는 정책 금리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에서 점진적 금리인상이 주식시장에 근본적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관건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의도와 다르게 빠르고 공격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경제 펀더멘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식시장의 추세를 압박하며 기대와 달리 주가가 약세 흐름을 지속할 위험에 놓인다. 이를 평가할 핵심 기준은 향후 물가추이다. 오일쇼크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가시적 안정을 되찾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화정책 지원 필요 없는 수준으로 회복한 미국 경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2020년 2/4분기에 17조 3,000억 달러(연 환산 기준)까지 감소했던 미국 실질 GDP는 역대급 정책 지원(통화정책+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했다. 한때 -10.8%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생산 갭Output Gap(잠재 GDP에 대한 실질 GDP 격차)은 올해 하반기에 다시 플러스(+)권을 회복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10년 이상 걸렸던 생산 갭 플러스권 회복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2년 미국 연준 정책금리 인상 횟수 전망 변화(금리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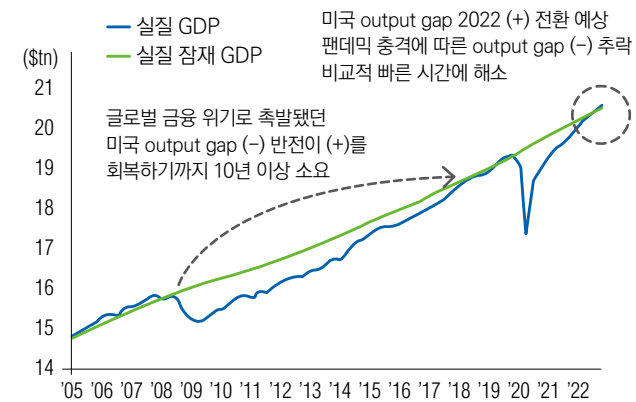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중립 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경기과열)이나
디플레이션(경기하강 지속)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정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준 금리 수준을 말한다.

는3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빨라졌다.
생산 겹의 플러스권 전환은 실질 GDP가 실질 잠재
GDP를 상회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제성장
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
다는 신호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호조
가 이어지며 미국 고용 여건이 코로나19 이전의 완전고
용을 올해 말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경우 정책 목표 2%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는 점에서 연준이 금리인상과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에

미국 실질 GDP는 올해 하반기 잠재 GDP를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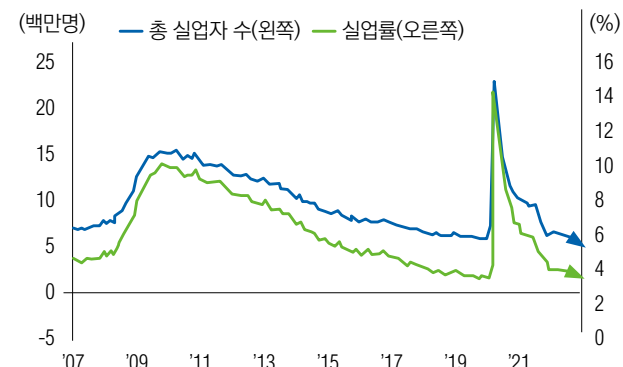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착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연준이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연착륙을 이끌기 위한 점
진적 통화정책 변경(내년까지 7~8차례에 걸친 단계적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2020년 -3.4%에서 2021년
+5.7%로 급반등한 미국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올해
+3% 중·후반을 거쳐 내년 +2%대로 연착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은 금리인상 부담
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며 점진적 고점 높이기 과정을 이
어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기 호조와 이를 반영하는 점
진적 금리인상 시기에 주식시장은 강세장 흐름을 유지
하는 성향이 뚜렷했고,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한 흐름을
반복할 수 있다.

주가 상승 기조 복귀의 전제 조건은 물가안정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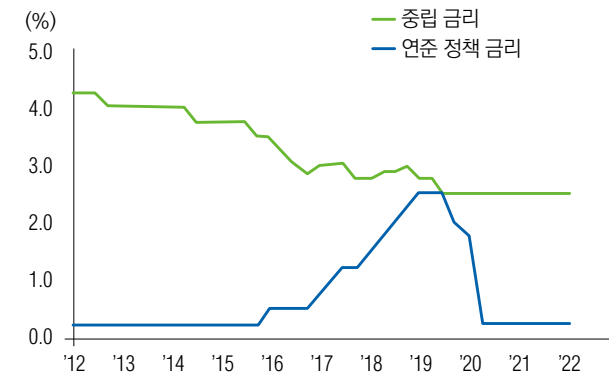
연준은 최근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미국 중립 금리 레벨
을 2.5%로 제시했다. 중립 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
(경기과열)이나 디플레이션(경기하강 지속) 위험에 빠
지지 않고 안정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준 금리 수준을
말한다.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는 이러한 중립 금리 레벨
까지 정책 금리를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미국 고용 여건은 올해 말 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전망



자료 Bloomberg,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연준 정책 금리와 중립 금리(Longer Ru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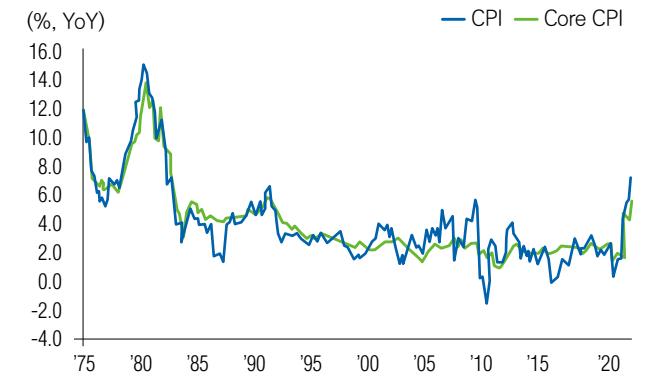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올해와 내년 각각 3~4차례씩, 내후년 2~3차례 금리인
상을 통해 중립 금리 수준에 도달하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진적 통화정책 변경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시기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분산하며 주식시장의 추세적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향후 2~3년간 연준 통화정책이 이와 같은 점진적 기조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 불안이 커지고 고물가 고착화 위험이 부각
될수록 연준은 정책 금리를 중립 금리 수준에 서둘러 복
귀시켜야 하는 정책적 압박감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연
준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 확대
를 감수하고라도 중립 금리에 서둘러 복귀하기 위해 금
리인상 속도를 높이는 쪽(올해 6~7차례 금리인상)으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게 된다. 물가 안정이 미흡
할 경우 내년에는 중립 금리(2.5%) 이상의 정책 금리 인
상 가이던스(정책 금리 점도표)를 표명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주식시장의 추세적 상승 기조는 상당한 부담
을 안을 수밖에 없다.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연착륙 여부와 주식시장의 성패
는 물가추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일쇼

미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오일쇼크 이후 최고치 경신



자료 Bloomberg,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크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이 1/4분기 중 정점 통과 신호가 확인되고, 연말 +2%대
까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면 2/4분기 중에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로 복
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연준의 금리인상 가이던스는 이 같은 긍정적
시나리오를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능
성이 낮지만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
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상승률 고점 통과 확인이 지연되고, 올해 중
물가안정세 확보가 가시적이지 못할 경우가 여기에 해
당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외 주식시장이
연중 내내 반복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 시나리오의 현실화 여부는 FOMC 회의가 예정
된 3월 중순에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애널리스트





세금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가업 승계 기업을 바통 터치하라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승계 방법이 다르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승계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기업에 맞는 가업 승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Writer: 양창우(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Photo: 셔터스톡

이번이 일어났다. 2020년 도쿄 올림픽 400m 계주에서 세계 최강 미국 팀이 예선 탈락했다. 팀 구성원 개개인으
로 보면 미국은 단연 우승 후보였다. 이런 미국 팀이 결
승도 아닌 예선에서 6위로 탈락했다. 바통 터치가 문제
였다. 줄곧 1등을 유지하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
겨줄 때 실수가 있었다.

계주에서 바통 터치가 중요하듯 기업 운영에서도 마찬
가지다.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잘 바통 터치해
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서 말한 계주에서처럼 줄곧 1
등을 달리다가 예선 탈락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TWO CHAIRS〉1+2월호에서는 세금 특례를 활용한
가업 승계 방법과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
다. 이전 호에서 언급했듯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 중
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기
업이 세금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
을 선호하고 있다. 법의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자신의
기업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러한 기업은 적정한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승계한다. 이번 호에서는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고, 유의점은 무엇인지 개
인과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살펴본다.

Part1. 개인사업자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A씨. 나름 맛집
으로 알려져 가게는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동
안 고생한 덕분에 식당 건물도 구입해 임대료 걱정도 덜
었다. 이제 식당을 운영할 기력이 다하고, 노후는 이곳
저곳 여행 다니며 편하게 보내고 싶다. 그래서 식당 일을
둬고 있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려고 한다. 식당이 있
는 건물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될 것 같은데,
가게 인지도나 음식 레시피, 운영 노하우같이 눈에 보이
지 않는 무형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에 대한 세금 부과 방법

개인은 법인과 다르게 사업용 자산의 구분이 모호한 경
우가 많다. 기계설비나 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각 자산을 평가해 이에 대한 세
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A씨처럼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
하며 쌓아온 평판과 영업력 등 영업권이라고 하는 보이
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우리 회사는 법인도 아니고 공장 등 사업
에 사용하는 자산을 빼고 회사의 영업권을 살 사람은
없어. 그러니 영업권은 0원으로 보는 게 맞아’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영업
권을 0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해놓았다. 시가(거래가액, 감정가
액 등)가 있다면 시가로 영업권의 가치를 매기겠지만,
보통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액 =

$$\sum_{n=1}^5 \frac{\text{초과 이익금} \times (\text{평균 순이익} \times 50\% - \text{자기자본 } 10\%)}{(1+10\%)^n}$$

* 평균 순이익: 최근 3년간(3년 미만 시 해당 연수) 순손익액의 기중평균액
* n = 영업권 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

눈에 보이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영업권에 대
해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다)는 영업권 및 기
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한 자녀에게 거래를 서서히 옮기고 최종적으로 부
모의 사업자등록은 말소한다. 이러한 방법은 세법의 실

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기존 사업자인 부모와 신규 사업자인 자녀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영업권에 대해 사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부모의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Part2. 법인사업자

개인이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 각각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법인은 간단하게 이전하는 지분율만큼의 주식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상장한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낮추는 방법

주식은 가업 승계 당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재무제표의 수치를 고치지 않는 한 평가액을 변경할 수 없고, 설사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 경우에는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 주식 승계를 미리 준비한다면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을 내 1주당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액이 낮아지려면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를 낮춰야 한다. 먼저 순손익가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한다.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임의로 수입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입이 줄 수는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기업의 매출 구조가 몇 년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주식을 평가한다면 일시적 수입 감소로 평가액도 낮아질 것이다. 수입이 줄면 기업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 아니지만, 주식을 증여하기에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비용은 어떻게 늘려야 할까? 없는 비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과소계상 비용을 늘릴 수는 있다. 그동안 대표자 급여가 낮게 책정돼 있었다면 적정 수준으로 높인다. 그리고 높은 급여에 맞춰 퇴직금 적립을 늘려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한다면 인건비 증가로 순손익액이 낮아질 수 있다. 순자산가치의 경우 기존 보유 자산의 가치를 낮



추기는 어렵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매출이 크게 늘어 이익이 급증한다면 그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기업의 자산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자산이 더 늘어나기 전 가업 승계를 하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기 전 평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결국 인생이 타이밍이듯 세금도 타이밍이다.

총자산 중 부동산 비율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변동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반영 비율을 3:2가 아니라 2:3으로 평가해 순손익가치의 비중을 줄인다. 손익이 미미한 기업은 주식 평가시 자산보다 손익의 반영 비율을 늘려야 평가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손익의 반영 비율이 줄면 주식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옥이나 공장 등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인 기업은 총자산 가액의 변동 없이도 주식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비율이 늘어나기 전 가업을 승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2회에 걸쳐 가업 승계 방법 중 세금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과 활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가업 승계 방법에 정답은 없다. 다른 기업에 적합한 승계 방식이 우리 기업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기업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아닐까.

다음 주자가 손을 뺀 바통을 이어받길 기다리고 있다. 원활한 바통 터치로 지금의 1등 자리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하길 바란다. ●



양창우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1주당 가액=MAX(①, ②)

① 가중평균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¹⁾ × 3 + 1주당 순자산가치²⁾ × 2] × 1/5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건물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함)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80%

1) 1주당 순손익가치

= $\frac{\text{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text{이자율(10\%)}}$

※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2) 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액}}{\text{발행 주식 총수}}$



배당도 받고, 건물주도 되고! 리츠REITs로 일석이조 누리볼까?

부동산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뛰어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인 리츠 역시 부동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리츠가 불합리하고 복잡한 제도를 개선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달라진 리츠의 매력을 살펴보자.

Writer: 김능수(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동산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지난 몇 년간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작년의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7% 인상하며 40년래 최고 상승 폭을 갈아 치웠고, 경기회복에 따른 조기 테이퍼링과 더불어 추가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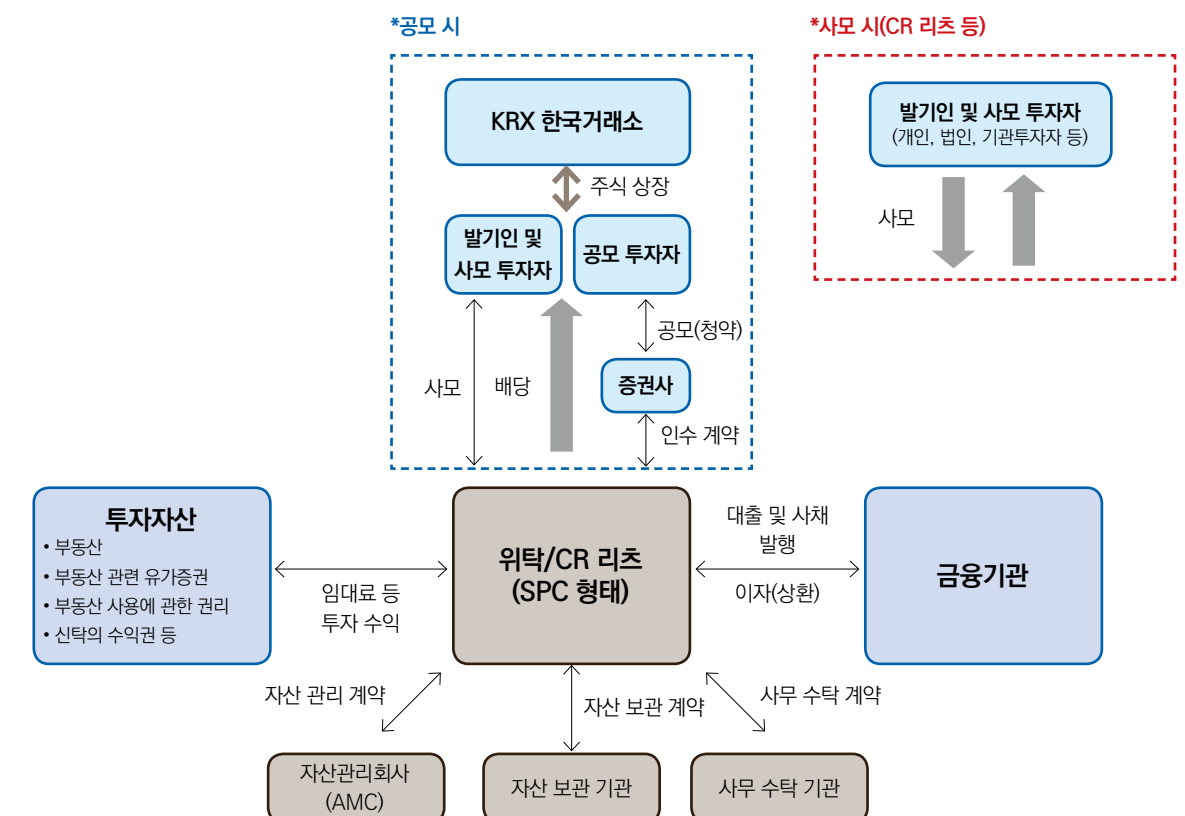
하지만 자산가들은 부동산이 다른 투자 상품보다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투자해 소유할 수 있는 간접투자 방식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 방

식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이하 리츠(REITs))와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MZ세대까지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간접투자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 더불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 회사들도 입지를 넓히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접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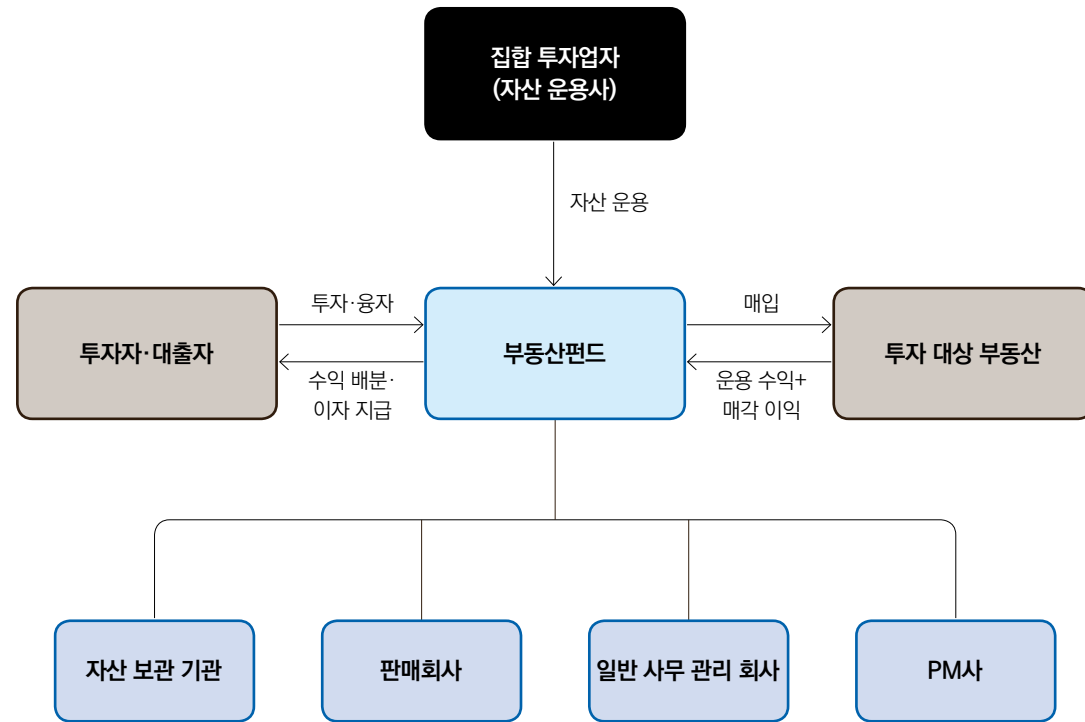
부동산 상장 리츠 vs 공모펀드,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은?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은 크게 리츠와 부동산 펀드로 구분하고, 다시 리츠는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 펀드는 사모펀드(투자자 49인 이하)와 공모펀드로 나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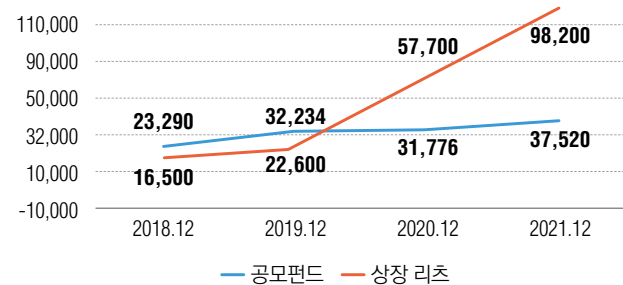
위탁 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리츠 구조



부동산 펀드 구조



상장 리츠 & 공모펀드 추이



중 전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종류는 공모펀드와 상장 리츠(주식회사의 증권이 거래소에 등록되어 매매 가능)로, 상장 리츠는 2021년 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약 75조6,000억원 중 13%인 9조8,000억원(18개), 공모펀드는 전체 펀드 설정액 약 134조원 중 2.8%인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상

장 리츠 자산총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자산 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상장 리츠가 공모펀드보다 적었지만 최근까지 약 6배가 증가해 공모펀드의 약 3배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는데, 두 상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장 리츠와 공모펀드의 공통점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우량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일반 금융 상품과 비교할 경우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투자금 5,000만원 이하,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9.9%로 분리과세되지만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으로 상장 리츠는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배당을 받

는 구조인 ‘주식회사’ 형태로 영속이 가능하고 투자자인 주주의 결정에 따라 운용되지만, 공모펀드는 부동산 매입이나 개발 대출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사가 직접 의사 결정을 하므로 소유자들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금은 3~5년간 만기를 정해 운용하는데,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렇듯 상장 리츠와 공모펀드의 특성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상장 리츠의 경우 투자자가 유동화를 원하면 언제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를 통해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주식의 시세 차이

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양도 차액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두 상품을 비교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보다 상장 리츠가 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리츠와 해외 리츠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리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 기

부동산투자회사 비교

종류	자기 관리 리츠	위탁 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투자 대상	일반 부동산·개발사업	일반 부동산·개발사업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영업 개시	국토교통부 영업 인가(공모, CR 리츠는 금융위원회 사전 협의)		
설립 주체	발기인(발기 설립)		
감독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회사 형태	실체 회사(상근 임·직원)	명목 회사(상근 없음)	명목 회사(상근 없음)
최저 자본금	70억원	50억원	50억원
주식 분산	1인당 50% 이내	1인당 50% 이내	제한 없음
주식 공모	주식 총수의 30% 이상	주식 총수의 30% 이상	의무 사항 아님
상장	요건 충족 시	요건 충족 시	의무 사항 아님
자산 구성 (매 분기 말)	부동산: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 이상)	부동산: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 이상)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80% 이상)
자산 운용 전문 인력	5인(리츠 상근 고용)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 운용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 운용
배당	5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2021년 12월 31일까지)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90% 이상 의무 배당(초과 배당 가능)
처분 제한	1년	1년	제한 없음
자금 차입	개발 사업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 기간 없음		
	자기자본의 2배 이내(주총 특별결의 시 10배)		

자료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구로,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해주는 방식으로 2001년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리츠를 통해 조성한 거대한 자금이 아파트나 토지 등으로 유입될 경우 가격 폭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다른 나라보다 늦게 도입했다.

현재 국내 리츠는 위탁 관리 리츠·자기 관리 리츠·CR(기업 구조조정) 리츠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리츠의 분류 기준은 크게 투자 대상의 부동산 종류(일반 부동산 또는 기업 구조조정용)와 회사 종류(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는 실체 회사 또는 비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는 명목 회사^{SPC})로 구분한다. 이와 별개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

으나 자기 관리 또는 위탁 관리 리츠로 설립할 수 있는 세부 종류다. 보통 투자 대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 가능한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 임대주택에 투자하는데 최근에는 물류 창고, 데이터센터 등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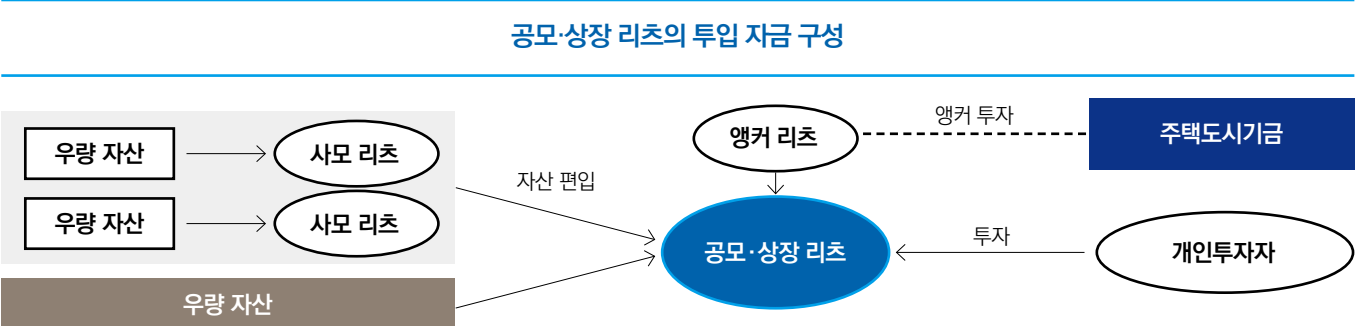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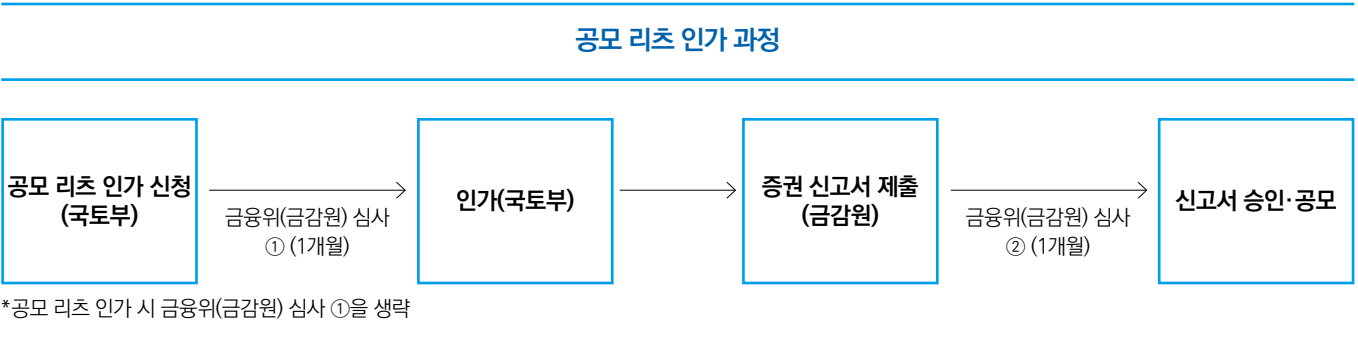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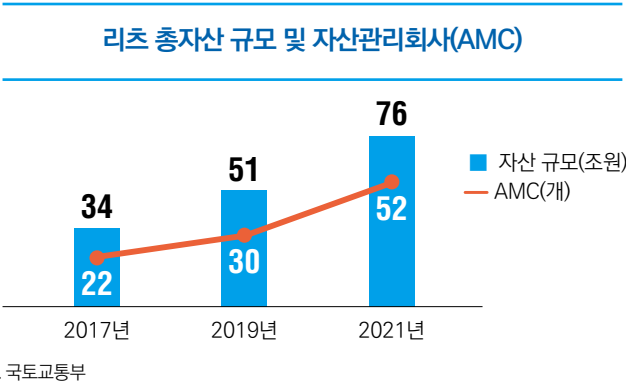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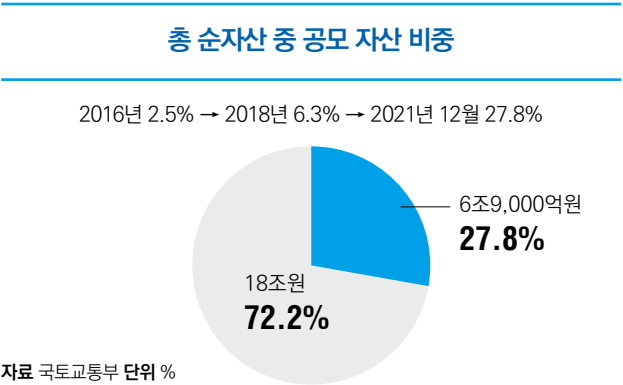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 리츠 제도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독일·영국·일본 등이 모두 리츠의 증권 상장을 허용했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리츠의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연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고, 개인의 경우 투자 금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특성이 있다.

정부의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 및 주요 내용

정부는 이전에도 수차례 리츠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리츠 회사나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 이유는 리츠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공모를 원칙으로 한 인가제로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기간이 길고 엄격할 수밖에 없어 투자 대상의 매각 의사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리츠 상품 출시까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리츠 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리츠 시장과 비교할 때 규모와 성숙도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그동안 공모 리츠가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리츠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 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해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며, 공모·상장 리츠 운영 및 업계에 상장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인 리츠도 투자 상품이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이자 비용이나 공실률이 증가해 배당 수익이 줄어들고 주식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확대하고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상반기 내 하위 법령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모 리츠와 공모 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 협의 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할 때 등록제를 적용하며, 사업 계획 검토를 생략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둘째, 리츠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을 합리화하고자 모자母子 구조의 대형 상장 리츠(5,000억원 이상)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 투자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이미 도입한 뉴딜 인프

라 리츠 관련 사회 기반 시설도 리츠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 시행 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섯째, 금융기관·공적 자금·연기금 등 대형 자금이 공모·상장 리츠의 최대주주(앵커)가 되어 자금 조달과 자산의 관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리츠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시 청약 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일곱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 부동산을 차단한다.

여덟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건전성 관리 강화 및 장기간 리츠 미수탁 시 AMC 인가 반납 규정 강화(현행 3년 → 2년)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공모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 배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이 향후 리츠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까?

이처럼 정부는 투자 기구인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현황			
구분	리츠(개)	총자산 규모(조원)	비율(%)
CR 리츠	21	3.0	4.0
위탁 관리 리츠	290	68.6	95.3
자기 관리 리츠	4	0.5	0.7
계	315	72.1	100
상장 리츠	18	9.8	13.0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12월 말 기준

연도별 리츠 설립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2
리츠 수	69	71	80	98	125	169	193	219	248	282	315
신규	32	18	20	30	41	59	36	38	50	60	62(1)
해산	2	13	9	9	11	15	11	11	20	26	28(1)
취소	11	3	2	3	3	-	1	1	1	1	1
자산 규모	8.2	9.6	11.8	15.0	18.0	25.0	34.2	43.2	51.2	61.3	75.6

*2021.12의 ()는 12월에 증가한 숫자임

(투자자산) 주택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2.9%를 차지								
자산 구분	주택	오피스	리테일	물류	복합형	호텔	기타	계
리츠(개)	156	69	31	33	17	6	3	315
자산 규모(조원)	40.0	19.8	7.4	3.8	2.2	0.5	1.9	75.6
투자 비율(%)	52.9	26.2	9.8	5.0	2.9	0.7	2.5	100

운영 중인 자산관리회사 현황									
자산관리회사 수	2021.4	2021.5	2021.6	2021.7	2021.8	2021.9	2021.10	2021.11	2021.12
	41	43	43	45	45	45	45	47	52

자료 국토교통부

호를 강화해 리츠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인 리츠도 투자 상품이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이자 비용이 증가하거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증가해 배당 수익이 줄어들고 주식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실물 자산 중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으로 리츠 역시 동일한 성질의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리츠는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환금성이 좋으며, 부동산 상품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품으로 쉽게 갈아

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면 향후 리츠가 은퇴 세대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토란 같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김능수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동산전문가



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최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다양한 연금 운용 상품의 등장, 보다 많아진 세액공제 혜택 덕분이다. 특히 6월부터 도입하는 퇴직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수익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2년 연금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Writer: 정인호(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은퇴마케팅전문가) Photo: 셔터스톡

연금제도는 전통적으로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1층 연금은 공적연금이며, 대표적 공적연금에 국민연금이 있다. 그다음 층은 퇴직연금이다.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 근로자 퇴직금 수급 안정성과 퇴직금 충당금 운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2005년에 처음 도입했다. 즉 회사에 다니면서 준비하는 기업연금이다. 마지막 3층은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일정 금액의 여유 자금을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자유롭게 적립하면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준비하면 어느 정도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현역 시절 한창 소득이 높았던 때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금액일 수 있지만, 월급처럼 파박파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 요소다. 몇 년 전부터 MZ세대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들은 주식 투자 등 재테크를 하는 이유로 부동산 투자 및 노후 준비라고 밝혔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구조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2025년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로 접어들 것이다. 2021년 6월 기준 연금 시장 적립금 규모를 보면 전체 1,528조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비중은 58.4%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적립금 비중보다 높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세계적격연금(연금저축)의 펀드 중

공적·사적연금 적립금 현황

구분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말		2021년 6월 말	
					증가율	구성비
개인연금(A+B)	337.7	351.3	365.8	371.6	1.6	24.3
세계적격연금(A) ¹⁾	135.2	143.4	152.5	156.8	2.8	10.2
보험	100.5	105.6	109.7	111.1	1.2	7.3
신탁	17.2	17.4	17.5	17.2	△2.0	1.1
펀드	12.1	14.5	18.9	22.0	16.6	1.4
기 타 ²⁾	5.4	5.9	6.4	6.5	2.0	0.4
세계비적격연금(B) ³⁾	202.5	207.8	213.3	214.8	0.7	14.1
보험	202.5	207.8	213.3	214.8	0.7	14.1
퇴직연금(C)	190.0	221.2	255.5	263.7	3.2	17.3
사적연금(A+B+C)	527.7	572.5	621.3	635.3	2.3	41.6
국민연금(D)	638.8	736.7	833.7	892.3 ⁴⁾	7.0	58.4
총계(A+B+C+D)	1,166.5	1,309.2	1,455.0	1,527.6	5.0	100.0

주 1)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 보험, 신탁) 2) 신탁, 수험,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포함

3)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4) 2021년 5월 적립금 기준

자료 2021년 공적·사적연금(직역연금 제외) 적립금 현황(금융감독원 연금감독, 2021년 9월 23일) 단위 조원, %

가율이다. 규모는 세제적연금 보험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약 14배로 펀드가 앞선다. 노후 자금 마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다양한 연금 전용 펀드의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성장 또한 눈에 띈다.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1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보다 15.7% 늘어난 규모다. 최근 DC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들

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연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는 시간순으로 살펴보자.

❶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됐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연금이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5% 인상한 30만 7,500원을 지급한다(2021년 기준 30만원). 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❷ 공적연금연계제도의 변경:

최소 가입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

2월 18일부터 공적연금연계제도의 합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2009년 8월 7일 시행). 여기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공무원연금 5년 가입 시 기간 축소 전에는 합산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이상 규정을 충족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구분	기존(2월 18일 이전)	변경(2월 18일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년 이상	10년 이상
군인연금	20년 이상	

❸ 농지연금 가입 연령 65세 → 60세로 하향

1분기 중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이 하향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으로 주택연금과 유사하다. 연금 수령 기간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 가능하며,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❹ 근로자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 이체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55세 이하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직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다. 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금에 포함해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 모두가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 사망 및 해외 출국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한다.

❺ 3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각 기업의 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로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초기 단계에는 외부 위탁 운용 관리(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정착 및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❻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6월 도입 예정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사전 지정 운용 가능 상품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 TDF, 혼합형 펀드, MMF, 부동산 인프라 펀드가 있다. 운용 방법은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 옵션을 적용한다. 물론 추후 가입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❼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공적연금 소득의 소득 반영 비율 상향

7월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공적연금 소득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정한다.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전부가 아닌 30%만 반영했으나, 7월부터는 50%로 반영 비율이 상향된다.

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는데, 그 기준으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본다. 기존의 경우 소득

요건은 '연소득 3,400만 원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사업자 미등록)',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단,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였다. 7월부터 강화하는 소득 요건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사업자 미등록)'이며,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단, 3억 6,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다.

추가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직장 보수 이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보험료에 추가 반영하나, 7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 시로 요건이 강화된다.

❽ 연금 계좌 추가세액공제 혜택 일몰 예정

올 12월 말에 50세 이상 연금 계좌 추가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다. 연내에 세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일몰 될 예정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 연금 계좌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4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되며, IRP 가입자는 7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동시 가입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

정인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은퇴마케팅전문가





Q&A로 풀어본 법률 자녀 증여,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자산가들에게 증여와 관련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자녀에게 언제, 얼마를 증여하는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에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줄 것인지, 손자녀에게 바로 줄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절세에 유리할까?

Writer: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속·증여팀 Photo: 셔터스톡

Q
자녀 증여, 절세 효과를
높일 방법이 있나요?

최근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후 틈틈이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증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A

10년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부 편법 증여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워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둘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타인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10년간 합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 증여재산 공제액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하는 사람(부모)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자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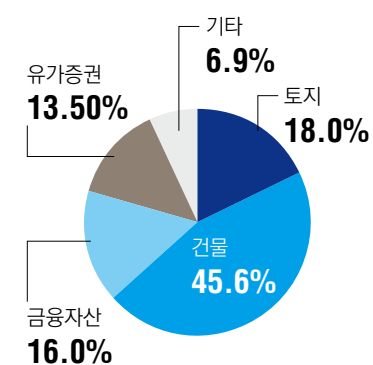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 시 3%의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금융거래 자료 등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적법하게 신고하고 3%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금 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추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추후 증여 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불렸을 경우 애당초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액분까지 고려해 증여

실무적으로는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 증여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관련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변경된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소유 주식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기 위한 문서), 등기 서류와 같은 입

증여재산별 비율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Q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해도 될까요?

증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고려한 현금까지 더해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아들 대신 손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들에게 물려줄 때와 비교해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 향후 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질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 세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가산하도록 법이 개정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 번 하고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어 절세 효과가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경우 납부 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시 산출 세액 공식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상속세 세율	누진 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 세대생략상속 시 산출 세액의 30% 가산(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



손자녀 증여시 할증 과세 제도 적용

이처럼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증여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할증 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할증 과세 제도는 생략된 세대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생략해 증여하더라도(즉 증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의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아들이 있다면 손자녀가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 등에 의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세대생략상속’도 30%(미성년자, 20억원 초과 시 40%)의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대습상속은 할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산출 시 10년 이내 증여재산까지 합산 과세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해도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분할해 미리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미 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세를 산정하되, 그 상속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할증 과세를 적용한 이후의 세액인지, 아니면 적용하기 이전의 세액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할증률이 30% 또는 40%에 달하기 때문에 할증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전 과세 관청의 입장은 할증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할증 과세로 인한 세대 생략 가산액까지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과세 관청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그에 이은 상속 등이 이뤄질 경우 할증 과세 및 상속세액 산정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 작품 투자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남북전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견뎌낸 미국 뉴욕의 유명 화랑 ‘노들러 갤러리(Knoedler Gallery)’는 165년의 역사를 자랑했다. 그러나 2011년, 뉴욕의 이 갤러리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문을 닫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Writer: 한혜미(갤러리K 아트 딜러)

165년 된 갤러리가 문 닫은 이유

노들러 갤러리(Knoedler Gallery)는 165년의 역사를 자랑했다. 남북전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견뎌고, 저명한 미술관과 유명 인사를 고객으로 둔 명망 있는 갤러리였다. 그러나 2011년, 뉴욕의 이 갤러리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문을 닫았다. 전쟁까지 견뎌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는 바로 ‘위작’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범죄 대상이 된 작가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과 마크 로스코(Mark Rothko)와 같은 20세기 미국 추상화가들이었으며, 판매한 위작의 규모는 약 8,000만 달러였다. 이러한 사기극은 20여 년간 이어졌는데, 한 컬렉터에 의해 수면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여러 미술계 관계자는 감쪽같이 속았다. 반대로 가품이 진품이 된 사례도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는 예수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으로, 제작 시기는 1500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이 처음부터 다빈치의 작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1958년만 해도 그의 제자가 그렸다고 여겨 45파운드에 거래되었다. 이후 전문가들의 복원을 거치며 재평가가 이뤄져 진품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작품 가격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2017년, 이 작품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 달러에 낙찰되었고, 역대 미술품 경매 최고가였다. 한화로 약 7만원에 거래되었던 작품이 60년 후 약 5,000억원으로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간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미술 시장은 진품 사이에 가품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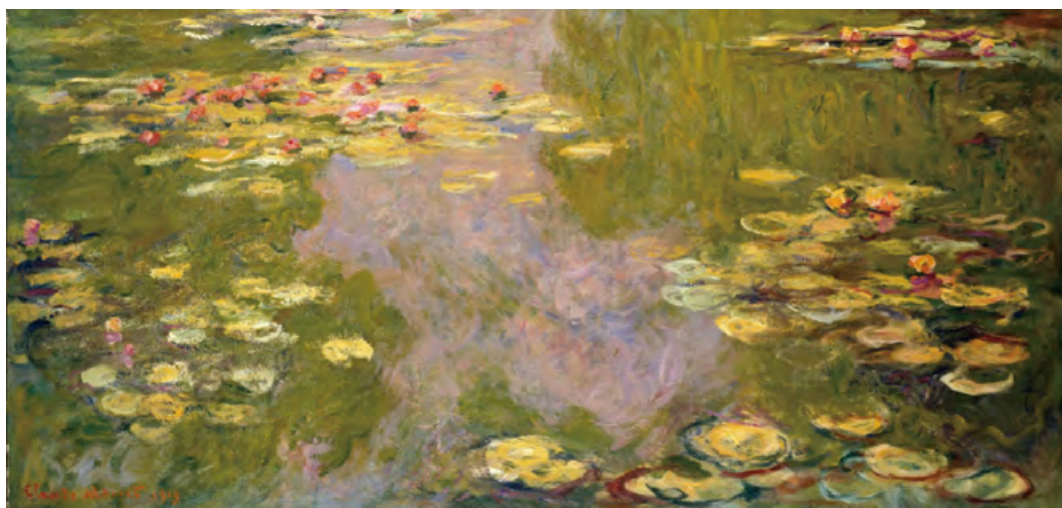
위작을 피하는 방법

아무리 기법이 뛰어나 높은 가격에 구매했어도 위작은 범죄의 결과물이자 속 빈 강정이라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많은 이가 예술품을 구매하는 것은 예술가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얘기한다. 미술품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안에 ‘작가의 비



1. 진품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1500년경)
2. 이제는 문을 닫은 미국 뉴욕의 노들러 갤러리
3. 잭슨 폴록, ‘White Light’(1954), Museum of Modern Art(New York)

전’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술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이 ‘진품’ 여부인 이유다. 그래서 위작은 예술품이나 자산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술품은 어디에서 구매할까. 작가와 직접 거래하거나, 유통처로는 갤러리(화랑)·아트 페어·경매 회사가 있다. 그



클로드 모네, 'Water Lilies'(1919), Metropolitan Museum of Art(New York)

중 갤러리와 경매 회사의 판매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위작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갤러리는 작가에게 직접 작품을 구매하고, 판매 시에는 갤러리에서 인증한 '진품 확인서(보증서)'를 발급한다. 진품 확인서에는 작품 정보(작가명, 작품명, 크기, 재료)와 작가 서명 및 판매처가 들어가는데, 이는 갤러리가 자체적으로 컬렉터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경매 회사는 위탁자에게 받은 작품 관련 서류와 경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보증서를 낙찰자에게 건넨다. 경매 전에 자체 검증과 심사를 통해 작품을 출품하지만, 위작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더 안전한 방법은 규모가 있는 갤러리와 경매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며, 만약 판매한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지면 구매가를 돌려준다. 당장의 작품 가격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듯 미술품을 예술품과 자산으로 나누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품의 진위 여부다. 미술품이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진위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

다. 작가의 '이력'과 '활동 지속성'이다. 유명 아트 페어에 참가했거나 저명한 갤러리의 전시 이력은 작가의 인지도와 판매율에 영향을 끼친다. 인지도가 높고 판매가 잘되는 작가일수록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컬렉터가 늘면서 작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작가의 이력에는 소장처와 소장자도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유명한 컬렉터가 작가의 작품을 소장한 이력도 중요하다. 이는 작품 활동의 지속성과 연관된다. 컬렉터는 작가의 비전을 작품과 함께 구매하는 것이므로 작가의 활동 지속성은 중요하다.

작업을 멈춘 작가는 활동을 포기한 연예인과 비슷하다. 물론 작고한 경우는 이와 다르게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작가가 작고 후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조건이 지켜졌어도 작가의 모든 작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작가는 원화뿐 아니라 판화나 소품(아트 상품)도 인기가 많지만, 작가의 작품마다 인기 있는 시리즈가 따로 있다. 같은 작가의 다른 두 작품이 시장에서 가격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다. 국내에는 호당 가격을 책정해 작가의 작품 가격에 통일성을 유지하지만, 이는 1차 시장에서 유통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컬렉터 간 판매가 이뤄지는 2차 시장에서는 컬렉터를



에곤 실레, 'Selbstbildnis'(1911)

통해 재평가가 이뤄진다. 미술품은 구매에 비해 판매가 어려워 이와 같은 조건을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작품 구매, 감상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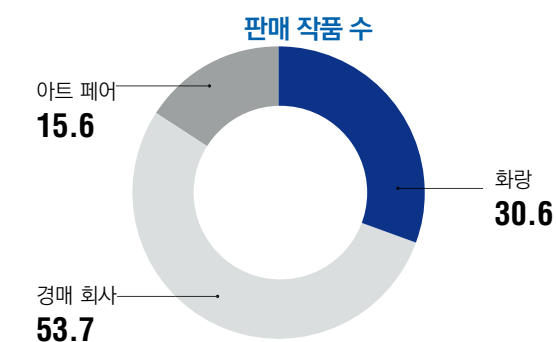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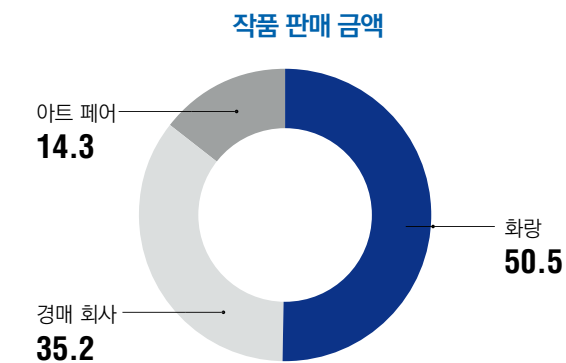
자칫하면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만큼 미술품을 통해 얻는 이점은 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하다. 인테리어와 아트테라피의 효과로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며, 개인의 취향과 안목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안목을 드러내기 위해 미술품을 개인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는 예도 빈번하다. 또한 나의 작품 구매로 작가가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으므로 나와 미술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다. 여러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아닌 이유다. 조건이 충족된 미술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더 인정받아 구매가 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래를 두고 '미술품 재테크(아트테크)'라고 부른다. 그 전까지 구매자인 컬렉터가 할 일은 좋은 작품을 구매한 후 잘 감상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미술품 재테크를 두고 '현재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재테크'라 부르기도 한다. 최근 들어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중과 연령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여러 컬렉터가 이미 미술품을 예술품이자



에드워드 스톯, 'A Spring Idyll'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은 한 작가의 영혼이 담긴 예술품이자 나의 귀한 자산이 되는 작품을 알아보는 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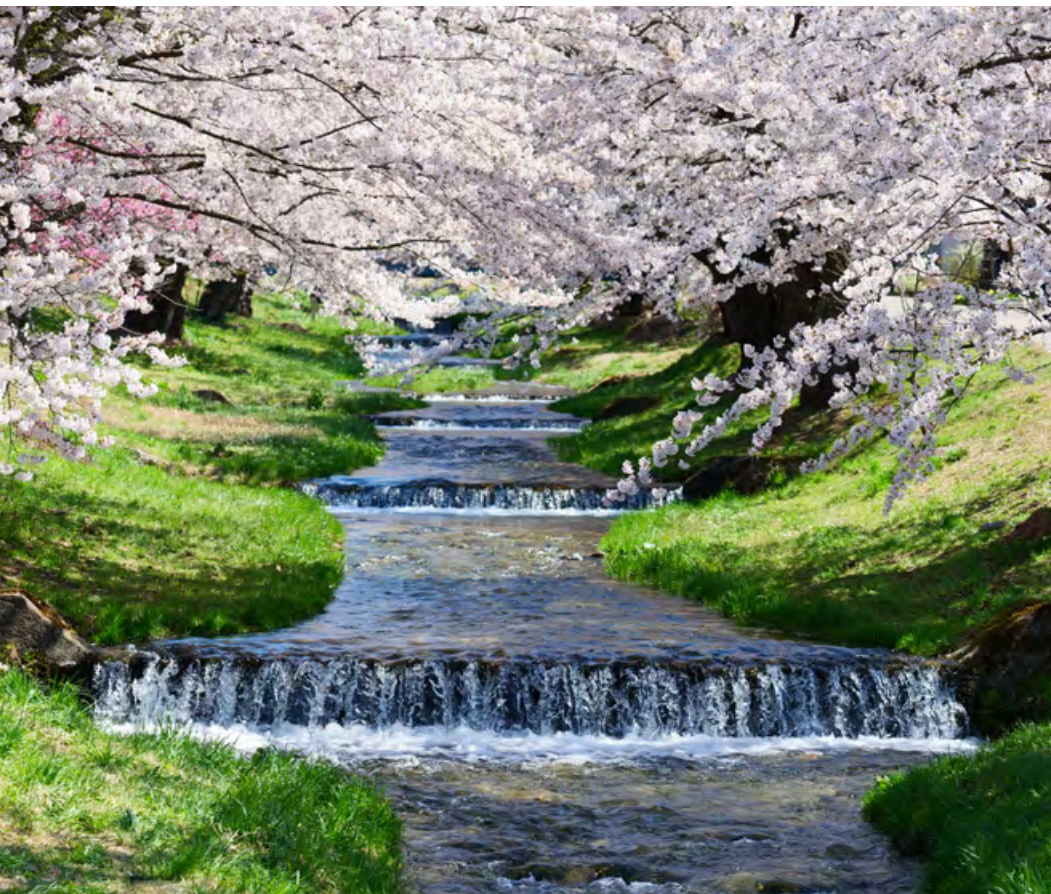
미술 시장 주요 유통 영역 시장규모 비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미술 시장 조사'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은행 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은행 WON뱅킹 ➡ 하단 메뉴 [자산] ➡ 중앙 배너 [TWO CHAIRS 웹진]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가기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참여 완료입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2년 3월 7일(월)~4월 15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al Gift



보이스캐디 A1
3명

우리금융그룹

우리 아이

우리 할머니

우리 동네

우리 아빠

‘우리’라는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이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1888년 <반 고흐의 의자> 반 고흐작



1888년 <고갱의 의자> 반 고흐작

반 고흐, 두 개의 의자

흠모하던 고갱을 위해 두 개의 의자를 그렸던
반 고흐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은행 TWO CHAIRS가
당신을 위한 두 개의 의자를 준비합니다

한결 같은 신뢰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은 물론 세무, 부동산, 투자 분석까지
우리은행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드리는 자산관리 서비스와 만나십시오.

- ◆ 자산관리 전문가그룹 주식·채권투자, 리스크, 경제전망,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 ◆ 세 무 전문가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간접세·법인세 관련 상담, 세금 관련 상담 서비스
- ◆ 부동산 전문가그룹 부동산 시장 분석, 개발 타당성 및 가치 제고 컨설팅, 부동산 매매 등 상담 서비스

TWO CHAIRS는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우리은행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TWO CHAIRS
woori private banking service